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權 奇 爽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조교수)

머리말

I. 修譜 사례의 분포와 시기적 추세

II. 족보 간행의 방식과 사회적 조건

맺음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1054082).
- 투고일: 2024. 11. 15. ● 심사일: 2024. 11. 21. ● 게재확정일: 2024. 12. 3.
- <https://doi.org/10.31218/TRKH.2024.12.156.119>

www.kci.go.kr

요약

본고는 조선시대 족보가 출현하여 널리 확산되어 가던 15세기부터 18세기초(숙종대)까지 이루어진 ‘초기 족보’ 간행 사례에 대해 기초적으로 검토하고, 인쇄 방식의 추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고문헌 소장기관에 현존하는 족보 목록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 족보의 舊譜序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사례,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사례 등을 추가하여 초기 족보의 종합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목록 중에는 조선의 譜牒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귀중본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편집 및 인쇄 방식을 전하거나, 초보적 가계기록에서 草譜를 거쳐 姓貫 전체를 대표하는 간행본 족보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족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족보 편찬의 시기적 추이를 집계해 보면, 후대로 갈수록 수보의 빈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동권씨성화보』와 『문화유씨가정보』 등 선구적 족보의 등장에 따라 족보 편찬의 유행이 발생했고, 16세기말 임진왜란으로 인한 족보 소실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전반 이후로는 발간 회수의 꾸준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족보의 간행을 목판과 활자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장기 보존성이 높은 목판본이 필사본에 비해서 현저히 많으며, 활자본은 17세기 후반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간행본 족보를 중심으로 책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도 확인된다.

족보의 간행지는 지방관이 부임지에서 간행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작업 지역은 전국 곳곳의 郡縣에 널리 분포하게 되었고, 관내의 사찰에서 작업한 경우도 있었다. 군현의 관아나 각도의 감영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16세기 이전에는 주로 내외손 지방관이, 17세기 이후로는

주로 동성 지방관이 연계망을 형성하여 협력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
중에서 지방관을 자주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부임지의 사정이
더해져 장기간 간행이 지연되거나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同宗 인원이 有司를 선임하고, 宗契를
활용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등 조직적 협력을 보이거나, 사족 사회의 역량
을 모아 간행한 사례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족보 편찬 과정의
여러 조건은 조선의 족보가 자연스럽게 양반지향성을 띠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족보, 간행, 목판, 활자, 筆寫, 草譜, 有司

머리말

한국사에서 족보는 조선시대 初·中期에 해당하는 15세기에 출현하여 17세기 이후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족보의 편찬과 간행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족보의 편집 방식이나 수록 내용이 정형화되어가던 15~17세기의 ‘초기 족보’¹⁾는 희귀한 편이다. 특히 16세기 이전의 족보는 『安東權氏成化譜』나 『文化柳氏嘉靖譜』와 같이 저명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적다.

초기 족보는 시기적으로 앞서서 희귀본이라는 점 이외에도 다른 시기의 족보보다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첫째로 아직까지 족보 편찬자들이 순수한 혈통 고증의 목적에서 계보 정리를 시작하던 시기이고, 신분 상승 등을 기대한 계보 조작이나 윤색 등의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수록된 계보 내용의 신뢰도가 높다.

둘째로 同姓 자손뿐만 아니라 딸과 사위로 이어지는 異姓 자손까지 무제한 수록하는 內外孫合譜 방식이라서, 해당 성씨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씨의 계보를 두루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개별 족보간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특성이 있다. 『成化譜』 등의 조선전기 족보가 당시 과거급제자 다수를 포함하고 있고, 여러 족보들이 서로 중첩된 내외손 관계로 얽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 족보는 조선전기 지배층의 혈연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중요 족보들을 모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할 경우 조선전기 계보정보의 체계적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족보는 다른 어떤 사료보다도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1) 본고에서는 족보가 처음 출현하는 15세기부터 상당수의 선도적인 가문에서 初刊譜를 내놓기 시작하는 17세기 전후까지의 족보를 지칭하기 위해 ‘초기 족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될 경우 유용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셋째로 초기 족보 중에는 각 姓貫의 初刊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족보라고 하는 계보기록이 어떻게 출현하여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족보는 어느 한 차례의 족보 編刊을 통해서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계기록을 종합 정리하는 修譜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변화·발전되어온 역사적 산물이다. 족보 출현 단계에 작성된 초기 족보에서는 아직 보편화된 족보 서식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편찬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던 점도 족보 출현에 대한 다각적 이해 가능성을 열어준다.

넷째로 족보는 문집류 자료와 함께 조선시대 사족 사회에서 적극적인 간행을 시도한 출판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관영 인쇄술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준이었던 당시의 서적 출간 환경에서, 초기 족보를 간행하기 위한 각 가문의 다양한 시도는 조선시대 민간의 서적 간행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적 가치가 높은 초기 족보에 대해서는 개별 또는 다수 족보의 사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바 있다. 초기 족보의 자료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관한 연구들²⁾은 족보 편찬의 추세와 중요한 판본의

2) 崔在錫, 1979,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 『歷史學報』 81, 역사학회; 黃雲龍, 1985, 「韓國族譜研究序說」, 『石堂論叢』 10,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研究院; 심승구, 2000, 「朝鮮初期 族譜의 刊行形態에 관한 研究」, 『國史館論叢』 89, 國史編纂委員會; 장인진, 2007, 「朝鮮時代 族譜의 文獻學的 검토」, 『東洋禮學』, 동양에학회; 崔陽奎, 2008, 「18세기 이후 朝鮮에서 派譜의 등장과 族譜의 확산」, 『白山學報』 80, 白山學會; 차장섭, 2010, 「조선시대 족보의 유형과 특징」, 『역사교육논집』 44, 역사교육학회; 옥영정, 2010,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族譜, 童蒙書, 地誌, 日記類 등 책판의 성격과 가치」,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장인진, 2011,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족보의 현황과 善本」, 『한국학논집』 4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이남희, 2011, 「조선 사회의 유교화와 여성의 위상-15·16세기 족보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8,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옥영정, 2011, 「조선후기 족보의 인쇄문화사적 접근」, 『한국학논집』 44; 권기석, 2011, 『족보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가치가 높은 개별 족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경우도 있는데, 『海州吳氏族圖』(1401),³⁾ 『安東權氏成化譜』(1476),⁴⁾ 『義城金氏癸丑譜』(1553),⁵⁾ 『文化柳氏嘉靖譜』(1565),⁶⁾ 『綾城具氏乙亥譜』(1575),⁷⁾ 『江陵金氏乙丑譜』(1565),⁸⁾ 『安東金氏姓譜』(1580),⁹⁾ 『四姓綱目』(1597),¹⁰⁾ 『驪興閔氏壬戌譜』,¹¹⁾ 『潘南朴氏壬午譜』(1642),¹²⁾

조선사회: 15~17세기 계보의식의 변화와 사회관계망, 대학사.

- 3) 鄭在勳, 1989, 「海州吳氏族圖考」, 『東亞研究』 1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오영선, 2001, 「조선초기 家系記錄에 대한 일고찰」, 『典農史論』 7, 서울시立大學校 國史學科; 김현영, 2017, 「조선시기 先代 파악 방식의 족보 반영 양상 - 해주 오씨 族圖를 중심으로」, 『韓國系譜研究』 7, 韓國系譜研究會. 오영선의 논문은 『安東權氏成化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 4) 權寧大, 1981, 「成化譜攷」, 『學術院論文集』 20, 대한민국학술원; Edward W. Wagner, 1989, 「1476年 安東權氏族譜와 1565年 文化柳氏族譜-그 성격과 意味에 대한 考察-」, 『石堂論叢』 15,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研究院; 宮嶋博史, 2008, 「『안동권씨성화보』를 통해서 본 한국 족보의 구조적 특성」, 『大東文化研究』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5) 권지은, 2020, 「족보를 통해 본 종족·가문·마을의 사회문화사 - 義城金氏 鶴峯 金誠一家를 중심으로 -」, 『韓國系譜研究』 10, 韓國系譜研究會.
- 6) 이정란, 2008, 「족보의 자녀 수록방식을 통해서 본 여말선초 족보의 편찬 배경 - 『安東權氏成化譜』, 『文化柳氏嘉靖譜』를 중심으로 -」, 『한국중세사연구』 25, 한국중세사학회; 백광열, 2019, 「《문화유씨가정보》(1565)를 통해 보는 여말·조선전기 엘리트」, 『한국계보연구』 9, 한국계보연구회; 백광열, 2021, 「『文化柳氏嘉靖譜』(1565) 등장 관료의 친족연결망을 통해 보는 조선 전기 사림과의 사회적 배경: 기묘사림을 중심으로」, 『奎章閣』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7) 車長燮, 2006, 「綾城具氏 族譜의 刊行과 그 特徵」, 『韓國史學報』 22, 高麗史學會.
- 8) 車長燮, 1997, 「朝鮮時代 族譜의 編纂과 意義 -江陵金氏 族譜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 朝鮮時代史學會.
- 9) 김난옥, 2013, 「안동김씨 김방경가문의 족보 간행과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37, 한국중세사학회.
- 10) 손병규, 2010, 「13~16세기 호적과 족보의 계보형태와 그 특성」, 『大東文化研究』 7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 11) 김명숙, 2009, 「<<驪興閔氏家乘記略>>을 통해 본 17-18세기 여흥 민문의 형성과 가문 정비」, 『韓國思想과 文化』 46, 韓國思想文化學會.
- 12) 權奇奭, 2017, 「潘南朴氏의 修譜 이력과 편집 방식」, 『韓國系譜研究』 7, 韓國系譜研究會; 정호훈, 2018, 「17세기 潘南朴氏 족보의 편찬과 그 動學 -錦溪君 朴東亮 후손의 활동을 중심으로-」, 『韓國系譜研究』 8, 韓國系譜研究會.

『眞城李氏族譜』(1600),¹³⁾ 『晉陽河氏世譜』(1606),¹⁴⁾ 『昌寧成氏族譜』(1616),¹⁵⁾ 『淸州韓氏世譜』(1617),¹⁶⁾ 『星州李氏萬曆譜』(1617),¹⁷⁾ 『海州吳氏甲戌譜』(1633),¹⁸⁾ 『達城徐氏族譜』(1679)¹⁹⁾ 등에 대하여 각 논고의 연구 관심사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족보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소장된 경우도 많지만, 자료적 특성상 개별 문중이나 개인이 世傳해 온 경우가 적지 않다. 15세기의 대표적 족보인 『성화보』는 문중 소장 자료를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기증받아 보관 중이고, 16세기의 저명한 족보인 『가정보』는 현재도 문중 소장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기관과 문중 등에 산재한 초기 족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중 善本을 선정하여 대체본을 만들거나 전산화된 DB를 구축하여 자료의 유실을 막고 사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대 족보에 실린 舊譜序跋을 통해서, 현존 여부는 불확실하더라도 과거에 존재했던 족보의 목록을 정리하고 차후 발굴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비해 둘 필요가 있다.

-
- 13) 김문택, 2013, 「한국적 중증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과정 -진성이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보연구』 4, 한국계보연구회.
 - 14) 손병규, 2012, 「조선왕조 1600년경 편찬 족보의 계보형태와 특성 -1606년 편찬 『晉陽河氏世譜(萬曆本)』의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김성오, 2018, 「17세기 초 편찬 『晉陽河氏世譜』에서 보는 합천지역 양반들의 네트워크」, 『사람』 64, 수선사학회.
 - 15) 이형운, 2013, 「昌寧成氏族譜의 山圖製作과 地理認識에 관한 研究」, 『韓國古地圖研究』 5-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 16) 고성배, 2023,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淸州韓氏世譜」의 간행체제와 특징 연구」, 『書誌學研究』 94, 韓國書誌學會.
 - 17) 고희령, 2010, 「『星州李氏 萬曆譜』의 제작과 의의」, 『한국계보연구』 1, 한국계보연구회.
 - 18) 이남옥, 2020, 「해주오씨 추탄가문의 가문 활동과 위상」, 『韓國系譜研究』 10, 韓國系譜研究會.
 - 19) 권기중, 2014, 「달성 서씨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신분변화의 장기 추세와 그 의미 - 『달성서씨족보』와 『대구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6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본 논문은 15~17세기 초기 족보의 편찬 사례를 다시 상세히 목록화하고, 修譜 사례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추세를 조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간행 작업의 전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족보라는 기록물이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아울러, 선구적인 여러 가문에 확산될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실물이 현존하여 존재가 알려진 족보와 舊譜序에 나타난 修譜 사례를 합하여 종합적으로 족보 목록을 만들고자 한다. 시기는 최초의 사례가 검출되는 15세기초를 기점으로 하여 17세기까지를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왕대별로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숙종 재위 말년인 1720년(숙종 46)까지를 下限으로 하였다. 이렇게 시기를 설정한 것은 선구적인 극소수 성관만이 간행본 족보를 내는 데 성공한 15~16세기와 함께, 여러 성관에서 앞다투어 初刊譜를 내놓기 시작하는 17세기~18세기초까지를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족보에 들어갈 초기 수보 사례는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부표]에 정리하였다. 첫째로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에 등재되었거나, 국내 주요 고문헌 소장처인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 성균관대학교 尊經閣 등에서 해당 시기 족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둘째로 기존의 관련 연구 논문²⁰⁾에서 소장처나 판본사항 등이 소개되었거나, 또는 목록의 형태로 정리된 족보들을 조사하였다. 셋째로 舊譜序들을 모아 놓은 자료집,²¹⁾ 문집 등에 실린 서발문에서 밝혀진 수보 사례들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파악한 초기 족보 목록을 토대로 필자는 먼저 족보 편찬의 거시적 추세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족보의 간행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 족보가 출현하고

20) 앞서 제시한 논저들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였으나, 특히 권기석, 2011, 앞의 책의 족보 목록에 크게 힘입었음을 밝혀 둔다.

21) 대표적인 것으로 鄭炳浣 編著, 1987, 『韓國族譜舊譜序集』, 亞細亞文化社가 있으며, 본고에서 현존 미확인 족보 중 상당수는 이 책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했다.

확산되는 단계에서 집단적 가계기록이자 적지 않은 분량의 인쇄물인 족보를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던 사회적 조건이 무엇이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 修譜 사례의 분포와 시기적 추세

[부표]에서 파악한 초기 족보의 사례는 총 259건이며, 각 사례에 대하여, 書名, 刊行年, 印刷方式, 刊行場所, 所藏事項 및 關聯研究 등의 정보를 파악하였다. [부표]에 수록된 사례 중에는 전형적인 성관별 족보도 있지만, 族圖나 家牒·家乘 등으로 불리는 초보적 가계기록도 족보 출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인되는 사례들은 굳이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였음을 밝혀 둔다. 또 개별 족보 책을 지칭할 때, 標題, 卷首題, 版心題 등에 의거하여 소장기관에서 등록한 書名(보통 ‘○○氏族譜’ 또는 ‘○○氏世譜’로 지칭)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문중이나 학계에서 부르는 通稱(‘安東權氏成化譜’, ‘江陵金氏乙丑譜’ 등이 이에 해당)을 사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실물 족보가 現傳하여 각급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序跋文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냥 성관명에 ‘족보’만을 붙여서 부르고, 『안동권씨성화보』의 경우처럼 통칭이 저명하거나 같은 성관의 다른 판본과 구별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따랐음을 밝혀둔다.²²⁾ 또한 본고에서 검토하는 현존 족보의 소장 사항이나 서발문의 출처, 관련 연구는 [부표]에 밝혀놓았으므로 본문에서는 일일이 각주로 전거를 제시

22) 이하 등록된 書名이나 通稱으로 지칭할 때는 『』를 넣고, 두 유형의 명칭이 모두 전하지 않는 경우는 ‘姓貫名+族譜’로만 지칭하며 『』는 생략한다. 또한 족보명에는 () 안에 연도를 넣어 첨부한다.

하지 않았다.

먼저 [부표]에 수록된 족보들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개관해 보기로 한다. [부표]의 사례는 크게 現存하는 족보와 그렇지 못한 족보로 나눌 수 있는데, 前者는 실제 계보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향후 집중적인 연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존 노력이나 영인본 혹은 디지털화 등 자료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 족보들 중에서 특히 16세기 이전에 편찬된 것들이 중요한데, 아직 본격적인 족보로 평가하기 어려운 초보적 가계기록까지 포함하면 다음 10여 건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즉 『海州吳氏族圖』(1401), 『安東權氏成化譜』(1476), 『鐵城李氏族譜之圖』(1476), 『星州李氏隴西郡公族譜』(1545), 『義城金氏世譜』(1553), 『江陵金氏乙丑譜』(1565), 『文化柳氏嘉靖譜』(1565), 『綾城具氏姓譜』(1576), 『高靈申氏漁城譜』(1578), 『安東金氏庚辰譜』(1580), 『草溪周氏世系』(1594), 『四姓綱目』(1597), 『眞城李氏族譜』(1600) 등이다. 이들은 제각기 조선시대 족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특성들을 갖추고 있다.

몇몇 사례는 족보로서의 격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초보적 가계 기록이지만, 족보가 출현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해주오씨족도』는 족보가 아니지만 실물로 현존하는 독립된 가계 기록으로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는 특성이 있다. 『철성이씨족보지도』는 독립된 서적이 아니라 『鐵城聯芳集』이라는 문집의 일부로 실려 있지만, 소규모 자손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사성강목』도 편찬자 개인 중심으로 편집된 초보적 가계기록이지만, 성씨별 족보에 못지않은 방대한 가계 정보를 포괄하고자 노력한 점이 주목된다.

계보 推尋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족보들도 있다. 『안동권씨성화보』는 최초로 확인된 간행본 족보이자 내외손 통합보로서 해당 성씨뿐

만 아니라 내외손 관계로 얽힌 당시 지배층의 다수를 포괄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유사한 성격을 가진 16세기의 『문화유씨가정보』와 쌍벽을 이룬다. 반면에 『강릉김씨을축보』나 『능성구씨성보』처럼 부계 중심의 가족관념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16세기부터 이미 동성 위주의 ‘姓譜’를 펴낸 사례도 찾을 수 있다.

족보 책자의 제작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사례들이 있다. 『성주이씨농서군공족보』나 『의성김씨세보』는 필사본 족보의 초기 사례로서 의미가 있고, 『진성이씨족보』는 비슷한 시기의 간행본 족보들이 대개 지방관으로 부임한 내외손들에 의해 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지방사족이 書院을 중심으로 간행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한편 [부표]에 정리한 많은 수보 사례는 현존 족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서발문만이 후대 족보나 문집 등에 실려 전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들은 서문 내용을 토대로 족보 내용을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상당수는 구체적인 편집이나 간행 작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 연대상으로는 水原白氏 족보(1405)가 조선 최초의 족보로 파악되고, 문화유씨도 1423년에 『永樂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수원백씨 족보 서문에는 보첩을 편집했다는 언급 외에 구체적인 편집 체제나 간행 과정에 대한 서술이 보이지 않고, 『문화유씨영락보』의 서문도 역대 顯祖의 행적에 대해 서술할 뿐 編刊 과정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속 족보인 『문화유씨가정보』에서도 『영락보』의 편찬 성과에 관한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서발문만 전해지면서 그 編刊 성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찾을 수 없는 사례들은 그 밖에도 다수 찾을 수 있는데, [부표]의 ‘현존 미확인’ 족보 중 인쇄 방식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경우는 대개 그러한 경우이다. 이들 중 다수는 실제로는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본고의

조사에서도 서문은 있으나, 『全義李氏成化草譜』(1476), 興城張氏 족보(1566)처럼 후대의 족보에서는 ‘草譜’라 불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족보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달리 서문에는 완성된 족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현존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고의 조사는 공공 도서관이나 기존 연구의 조명을 받은 족보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차후 문중이나 개인 소장본이 발견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향후 연구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존본이 없더라도 서문의 내용을 토대로 외손 수록 여부, 자녀의 기재 순위와 같은 편집 원칙이나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과 같은 판본 사항도 아울러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실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서발문을 통해서 필사본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필사본 족보들은 차후의 간행본과 대비하여 ‘草譜’라고 불리기도 하고, 간행 여부와 무관하게 정식 족보를 편찬하기에 앞서 그 기초자료가 된 기존 족보 원고를 가리키기도 한다. 한 예로 『晉陽河氏辛未譜』(1451)는 편찬자 河演(1376~1453)이 쓴 서문에 ‘上集과 下集으로 나누고, 下集에는 傍親을 실었다’는 언급이 있어서, 실제 간행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족보의 면모를 갖춘 草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속 족보로서 간행본을 내놓는 데 성공한 1606년 『晉陽河氏世譜』의 서문에서도 文孝公(河演의 諡號)의 구보를 계승하여 증보했다고 밝혀 놓았다. 『全義李氏成化草譜』(1476)도 후대에 ‘成化草譜’라고 지칭된 것으로 보아 필사본이었음이 확실하다. 이는 한 세기 후의 初刊譜인 『全義李氏姓譜』(1574)의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초보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편찬자 李麟이 淸川府院君 韓伯倫의 집에서 찾아낸 또다른 초보를 바탕으로 보충한 것이었다.²³⁾ 『昌寧成

23) 『全義李氏族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53), 「成化草譜序」(1476년, 李麟). 한 백룡은 睿宗의 國舅로서 全城君 李思義의 둘째 아들 判羅州牧使公 李尉의 외손으

氏族譜』(1493)는 舊譜가 없는 상황에서 시조 中尹公에서 摠郎公까지의 계보를 연결한 뒤, 傍親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하였다는 언급으로 보아 어느 정도 핵심 계보를 포괄한 족보를 만드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초의 初刊譜로서 현존하고 있는 『昌寧成氏族譜』(1616)의 서문에서는 1493년본을 『成原古譜』라고 부르면서, 이를 成晉善 등이 증보하여 간행하였다고 하였다.²⁴⁾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보이듯 서문에 간행 사실이 명기되지 않은 족보들은 대부분 필사본으로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말문에서 인쇄본이었다고 언급하였으나 현존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면, 金寧金氏 족보(1624)는 서문에 ‘入梓’, 즉 인쇄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현존 판본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초기 족보의 간행 방식에 대해서 다루면서 다시 상세히 논급하기로 한다. 다수의 족보들이 간행본을 내놓는 것을 지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행본이 족보의 완성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필사본 족보들도 그 편집 형태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계보정보를 담고 있는 여러 문헌 자료들이 존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계기록들이 편집되었다. 그 가계기록 중에는 족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성관별 족보도 있지만, 편찬자의 개인적 필요와 주관을 반영하는 다양한 ‘초보적 가계기록’도 존재했다.

이러한 가계기록 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층위별 형태를 [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원초적인 단계는 戶籍, 榜目, 教旨, 戶牌 등의 계보정보를 담은 기록의 수집이다. 永川李氏 족보(1552)는 9대조 이하는 告身이나 教旨를 활용하고, 10대조 이상은 戶牌를 활용하여 계보를 고증했다고 한다. 『南陽洪氏族譜』(1576)도 여러 호적 자료를 활용하였고,

로서 전의이씨와 혈통이 연결된다고 한다.
24) 『昌寧成氏族譜』(1616), 成文濬 서문.

『光山卓氏庚子譜』(1600)는 兵火 이전의 가첩과 科譜 등을 근거로 삼아 편찬하였는데, 과보는 방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新平李氏 족보(1650)도 正統 12년(1447) 漢城府의 先世帳籍을 활용하여 계보를 고증하였고, 原州崔氏 족보(1716)도 成化 및 弘治 연간(1465~1505)의 戶口를 발견하여 족보 편찬에 참고하였다.

이렇게 원초적 계보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한 초기 작성물은 명실상부한 성관별 족보라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족보로서의 요건과는 거리가 있는 초보적 가계기록이다. 초보적 가계기록은 ‘소규모 가계기록’과 ‘개인적 가계기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소규모 가계기록’은 족보로서의 분량이나 서식을 갖추지 못한 族圖, 家牒, 家乘 등을 들 수 있고, ‘개인적 가계기록’은 공통조상을 기준으로 다수의 자손을 평등한 자격으로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편찬자가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편집한 것으로 八高祖圖와 이를 응용한 가계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상당수의 초보적 가계기록은 이 둘 다에 해당하기도 한다.

[부표]에서 확인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현존 자료 중에도 초보적 가계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 낱장의 문서에 가계 정보를 도식화하여 수록한 『해주오씨족도』(1401), 고성이씨 李原(1368~1429)의 직계선조와 내외자손을 간략히 수록한 『철성연방집』(1401), 선산김씨 金宗直(1431~1492)의 직계와 가까운 친족을 수록한 소규모 가첩인 『彝尊錄』(1480), 작성자 고성이씨 李魯(1544~1598)를 기준으로 내외 조상의 4개 성씨의 계보를 망라한 『四姓綱目』(1597), 편찬자 宋熙業의 八高祖 등의 직계 조상을 家乘 형식으로 망라한 『礪山宋氏十二世系』(1644)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그밖에 『興陽李氏家牒』(1601), 『德水張氏家乘』(1621), 『蔚山金氏內外譜』(1689) 『判尹南公先系』(1700) 등과 같은 소규모 가첩류도 같은 부류로 볼 수 있다.

현존하지 않는 자료 중에도 다수가 초보적 가계기록이다. 『강릉김씨왕족도』(1476)는 『강릉김씨을축보』에 앞서서 존재한 필사본 상태로 존재한 가첩류이며, 『柳義興内外八姓族譜』(1544)는 유희잠의 개인을 기점으로 하여 本宗과 外姓을 합한 8개 성씨를 망라한 가계기록으로서 현존하지는 않지만 『문화유씨가정보』에 선행하는 개인적 가계기록이다. 『韓氏八祖族圖』(1683)는 팔고조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 가계기록으로 생각된다. 『德水李氏宗系圖列傳』(1686)도 편찬자 李植이 작성한 가첩류 기록에 여러 顯祖의 열전을 추가한 형태로 보인다.

정확한 書名이 전하지는 않지만, 족보 서문의 서술에서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全義李氏成化草譜』(1476)의 편찬자 李麟의 조부 李賀가 편찬한 全城李氏·月城金氏·東州崔氏·陽川許氏를 포괄한 족보라든지, 『恩津宋氏族譜』(1599)의 서문을 쓴 宋柟壽가 작성한 八高祖의 계과를 기록한 八寸譜가 그러하다. 『南陽洪氏景泰甲戌譜』(1454)는 선대에 작성된 「南陽洪氏派系之圖」라는 자료를 활용했는데, 그 명칭이나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시조로부터 몇 세대에 걸친 가계를 간략히 나타낸 族圖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권씨성화보』(1476)도 ‘家譜小牒子’로 지칭되는 초보적 가계기록이 이미 존재했음이 언급되어 있고, 『鎭川宋氏辛丑譜』(1541)도 ‘外派支派譜’라는 구보를 참고했는데, 명칭으로 볼 때 온전한 성관별 족보의 형태는 아닌 듯하다. 『南陽洪氏族譜』(1576)는 족질 현령 朴挺立이 제공한 小帖을 활용하였는데, 그의 외증조 승지 洪湜이 손수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족보 이전에 초보적인 가계기록들이 있었으며, 상당수 서문으로만 전하는 족보는 초보적 가계기록의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초보적 가계기록들이 모태가 되어 성관별 족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은 기존 족보를 바탕으로 좀더 釐正·增補된 족보를 만들어내는 단계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豐川盧氏族譜』(1536)의 경우 편찬자 盧禎의 從父가 쓴 草譜가 있었는데, 서문의 설명에 따르면 상당히 자세한 계보였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성관별 족보로서의 면모를 이미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全義李氏姓譜』(1574)를 편찬하면서는 이미 작성된 『成化草譜』를 편찬자 李賀의 손자 李麟의 집에서 구했고, 관찰사 李繼福의 『慶壽詩後譜』라는 초보도 참고하였다. 『羅州朴氏族譜』(1642)도 嶺南宗人이 만든 족보와 故牧使 朴大夏가 만든 보첩을 합쳐서 釐正한 결과물이다. 淸州李氏 족보(1657)는 편찬에 앞서서 『西原古譜』라는 초보와 同宗 李穀이 소장한 姓譜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그런데 초보적 가계기록에서 성관별 족보로의 전환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성관별 족보 중에도 아직까지 초보적 가계기록의 특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기록들이 있었는데, 대개 편찬자와 직접 관련된 계보 부분만 상세한 정보를 담거나 특별 취급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진양하씨세보』(1606)는 本譜와 外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本譜 부분에서 편찬자 河渾의 所自出만 상세히 하면서, 당시 조선의 족보편찬자들이 즐겨 인용하던 중국 宋代의 蘇氏 족보에서 ‘족보는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蘇洵의 말을 인용했다.²⁵⁾ 新昌孟氏 족보(1675)의 서문 필자 孟曹瑞도 ‘나’의 소자출을 상세히 한 것은 老蘇의 說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중국 蘇氏族譜를 근거로 개인중심의 편집 방식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설명이다. 忠州池氏 족보(1621)는 편찬자의 부친부터 고조부에 대해서만 行狀과 配母氏를 수록하였다. 『平海孫氏癸酉譜』(1633)는 內外傍親支派가 번연하다는 이유로 편찬자 ‘吾身’으로

25) 宋代 蘇氏族譜는 편찬자 자신을 기준으로 5세대에 걸쳐 譜圖를 그리는 小宗法을 채택하고 있어서, 시조의 자손을 무제한 기록하는 성씨별 족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蘇氏族譜의 특징과 조선 족보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李紀勳, 2011, 「송대 족보문화와 蘇洵의 <蘇氏族譜>」, 『중국문학연구』 45, 한국중문학회.

부터 10촌에 한하여 수록하면서, ‘寸疏情親’한 자는 이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여 편찬자와의 친분에 따른 임의적 판단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凡例’에 따라 다수가 동의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는 후대 족보들과는 크게 다르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본 초보적 가계기록을 포함한 족보 편찬의 빈도가 시기별로는 어떤 추이를 보이면서 편찬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10년 단위로 사례수를 집계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수보 사례 중에는 해당 서적이 현존하는 경우도 있고, 구보서문 또는 문집 등을 통해서만 언급이 확인된 경우가 있는데 양자를 각각 ‘현존 확인’과 ‘현존 미확인’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시기별 修譜 사례 추이

시기	사례수	현존 확인	현존 미확인
1401~1410	2	1 (해주오씨족도)	1 (수원백씨)
1411~1420	0	0	0
1421~1430	1	0	1 (문화유씨영락보)
1431~1440	1	0	1 (원주변씨)
1441~1450	2	0	2 (남양홍씨)
1451~1460	3	1 (안동권씨족도)	2 (진양하씨, 남양홍씨/당홍)
1461~1470	1	0	1 (성주이씨)
1471~1480	7	2 (안동권씨성화보, 철성이씨족보지도)	5 (충주박씨, 강릉김씨왕족도, 진의이씨성화초보, 장순왕후공혜왕후의가민씨족보, 이준록)
1481~1490	3	0	3 (함양군삼성족보, 남원양씨족보, 양성이씨)
1491~1500	2	0	2 (창녕성씨족보, 하음봉씨)

26) 족보의 凡例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권기석, 2010, 「조선시대 族譜의 入錄階層 확대와 한계 -凡例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55, 조선시대사학회.

사학연구 제156호(2024. 12)

시기	사례수	현존 확인	현존 미확인
1501~1510	0	0	0
1511~1520	2	0	2 (원주변씨, 화순최씨)
1521~1530	2	0	2 (한양조씨, 합천이씨)
1531~1540	4	0	4 (화순최씨, 제주고씨, 풍천노씨 족보, 파평윤씨)
1541~1550	6	1 (성주이씨농서군공족보)	5 (진천송씨, 태인허씨, 유의흥내 외팔성족보, 청송심씨, 순흥안씨)
1551~1560	7	1 (의성김씨세보)	6 (원주변씨, 창원정씨족보, 영천 이씨, 연일정씨, 옥천전씨세보, 낙 안김씨)
1561~1570	10	2 (강릉김씨을축보, 문화유씨가정 보)	8 (금성나씨, 청송심씨, 낙안김씨, 장수황씨, 흥성장씨, 전주최씨, 청 산정씨, 청주양씨)
1571~1580	9	3 (능성구씨성보, 고령신씨/여성 보, 안동김씨/구안동)	6 (전의이씨성보, 연일정씨, 남양 홍씨족보/토홍, 음성박씨, 청송심 씨, 초계주씨)
1581~1590	6	0	6 (함종어씨, 부녕김씨, 동래정씨, 파평윤씨, 제주양씨, 현풍곽씨)
1591~1600	10	4 (사성강목, 진성이씨족보, 초계 주씨, 고성이씨철령초보)	6 (성산이씨, 은진송씨족보, 진주 하씨, 광산탁씨, 단양우씨, 흥양 이씨)
1601~1610	13	4 (홍양이씨가첩, 연안이씨족보, 진양하씨세보, 광주이씨동성보)	9 (남양홍씨세보/당후, 덕산황씨 족보, 안동권씨을사보, 진주하씨, 경주배씨, 양성이씨, 창녕조씨족 보, 흥해배씨, 여산송씨)
1611~1620	7	4 (창녕성씨족보, 성주이씨만력계 축보, 청주한씨세보, 해주오씨가 감잡록)	3 (경주이씨, 완산최씨별보, 함안 조씨)
1621~1630	4	0	4 (덕수장씨가승, 충주지씨, 여흥 민씨, 김녕김씨)
1631~1640	12	6 (고성이씨세보, 전의이씨성보, 해주오씨세계, 수양세보/해주최 씨, 청풍김씨족보, 오천정씨세계)	6 (평해손씨, 함평이씨, 파평윤씨, 해주오씨, 옥천전씨, 평산신씨)
1641~1650	12	8 (나주박씨족보/반남박씨임오보, 단양우씨족보, 순천장씨족보, 한	4 (영천이씨, 풍기진씨, 경주김씨, 신평이씨)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시기	사례수	현존 확인	현존 미확인
		산이씨족보, 여산송씨십이세계, 파평윤씨구보/야성윤씨세보, 광산김씨세계, 오천정씨족보)	
1651~1660	10	5 (홍주송씨세보, 동래정씨세보, 의성김씨족보, 순흥안씨족보, 창원공씨족보)	5 (한양조씨족보, 고흥유씨족보, 안동권씨갑오보, 청주이씨, 봉성금씨)
1661~1670	11	6 (밀양박씨족보, 도강김씨족보, 여산송씨세보, 순흥안씨족보, 은진송씨족보, 진주소씨족보)	5 (변양복씨, 관북청주한씨함흥뉴전파보, 함평이씨, 함안조씨, 평강채씨신족보)
1671~1680	19	9 (원주이씨족보, 부안임씨세보, 남평문씨족보, 영계신씨세보, 광산김씨족보, 금산김씨족보, 진양하씨족보, 진천송씨족보, 함양박씨족보)	10 (양천허씨족보, 상주박씨, 고흥유씨족보, 신창맹씨, 완산최씨, 해평윤씨, 밀성박씨족보, 평양박씨족보, 풍양조씨, 함평정씨)
1681~1690	30	19 (파평윤씨족보, 풍천노씨족보, 반남박씨세보, 진양정씨세보, 경주이씨족보, 김해김씨족보, 경주김씨족보, 선성김씨족보, 진산강씨족보, 김해김씨족보, 양씨대족보, 풍천임씨세보, 전주최씨족보, 문화유씨족보/기사보, 울산김씨내외보, 청주경씨족보, 선산김씨족보, 흥성장씨족보, 전주이씨세보)	11 (영양남씨족보, 진주소씨족보, 평해손씨, 풍천임씨, 태인허씨, 나누나씨, 한씨팔조족도, 신천김씨, 덕수이씨종계도열전, 남양홍씨(토홍), 부평이씨)
1691~1700	18	13 (함열남궁씨족보, 의령남씨족보/계유보, 창녕조씨족보, 경산진씨족보, 경주김씨족보, 성주이씨족보, 연안이씨족보, 인천이씨족보, 함양박씨족보, 제주양씨대족보, 담양전씨족보, 초계정씨족보, 관운남공선계)	5 (목천마씨족보, 사천목씨, 전의이씨, 해주정씨, 밀양손씨)
1701~1710	25	21 (밀양박씨족보, 순흥안씨족보, 안동권씨세보/신사보, 광산김씨족보, 대구서씨족보, 영성정씨족보, 순창조씨족보, 창원정씨족보, 평산신씨세보, 해남윤씨족보, 초계	4 (울산박씨족보, 남원윤씨, 해주최씨족보, 풍산홍씨)

시기	사례수	현존 확인	현존 미확인
		정씨족보, 기계유씨족보, 연안차씨세보, 재교침수청주한씨족보, 연안차씨보, 파주염씨족보, 고양박씨족보, 일선김씨세보, 창녕성씨족보, 벽진이씨세보, 삭녕최씨족보)	
1711~1720	23	18 (동북오씨족보, 영양남씨족보, 덕수이씨세보, 여흥민씨족보, 청송심씨족보, 함중어씨족보, 창원황씨족보, 강릉김씨세보, 재령이씨족보, 행주기씨족보, 재령이씨세보, 동래정씨족보/병신보, 영산영월신씨합보, 남양홍씨족보/당홍, 수양오씨족보, 옥천전씨족보, 연안김씨세보, 진양하씨족보/기해보)	5 (순천박씨/계사보, 해평이씨, 능성구씨족보/병신보, 배천조씨, 원주최씨)

이상의 표를 통해서 족보 편찬 활성화의 몇 가지 추세를 읽어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후대로 갈수록 사례의 빈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존 확인·미확인을 구분하지 않고 50년 단위로 합산해 보면, 15세기 전반(1401~1450년)은 6건, 15세기 후반(1451~1500년)은 16건, 16세기 전반(1501~1550년)은 14건, 16세기 후반(1551~1600년)은 42건, 17세기 전반(1601~1650년)은 48건, 17세기 후반(1651~1700년)은 88건이며, 20년치만 조사한 18세기초 숙종 재위 연간(1701~1720년)은 48건으로 기간 대비 건수를 감안하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6세기 전반이 15세기 후반보다도 근소하게 적은 데에서 드러나듯이, 상세히 살펴보면 족보 편찬 건수가 단선적으로 늘어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10년 단위 추세를 분석해 보면 몇 차례의 족보 편찬 유행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행은 『안동권씨성화보』가 간행

되던 1471~1480년 구간에 갑자기 7건이나 출현한 구간에서 확인되는데, 1481~1490년도 3건이나 확인되는 것도 그 여파처럼 보인다.

그 후 대략 1530년 무렵까지 50년 가까이 소수의 수보 사례만 확인되고 현존 족보는 전혀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다가 1541년 무렵부터 1600년까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수보 사례가 증가하는 두 번째 유행이 출현했다. 이 유행 기간에 현존 확인본이 11건이나 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저명한 『文化柳氏嘉靖譜』라 할 수 있으나, 星州李氏, 義城金氏, 江陵金氏, 綾城具氏 등의 필적할 만한 사례들도 연이어 출현하여, 16세기 이전 귀중본 족보의 대부분이 산출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90년대의 임진왜란으로 많은 족보와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문헌들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로 접어들면서 다소의 증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꾸준히 족보가 편찬되는 추세가 자리잡는다. 1601~1610년을 전후한 족보 편찬 재유행은 왜란 발생으로 인한 계보기록 소실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1631~1640년 구간 이후로는 10년당 10건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꾸준히 편찬이 이어졌고, 1671~1680년 구간부터는 더욱 급격히 편찬 건수가 늘어나서 10년당 20건 이상 발간되는 추세가 지속되기에 이른다.

위 표에서 확인되는 족보 발간의 量的 추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몇 가지 요인, 즉 선구적인 계보기록의 영향 관계, 壬辰倭亂으로 인한 족보 소실 등은 당시 족보 서문의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선구적 족보가 他姓의 족보 발간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陝川李氏 족보(1529) 서문에 의하면 당시 알려진 족보로는 ‘四佳先生(徐居正)의 權氏族譜’, ‘佔畢齋의 『彝尊錄』’이 있고, 그 밖에는 들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15세기 전반까지도 前代의 족보로서 널리 알려진 족보가 극히 드물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서거정이 서문을 쓴 『안동권씨성

화보』는 상당한 분량의 족보이지만, 『彝尊錄』은 家牒 수준의 소규모 가계 기록이었음에도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던 점이 특색이다. 金安國(1478~1543)이 쓴 陽川許氏 족보 서문²⁷⁾에는 近世 安東權氏의 족보가 당시 사족에게 조상을 추모하고 宗族을 보존하자는 생각을 일으켜 風化에 도움을 준 것이 적지 않았는데, 唱導가 있어도 호응이 없어서 뒤를 이어 수보하는 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 또한 15세기 전반까지 修譜가 부진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성화보』 등 초기족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5~16세기의 부진한 족보 발간 상황과는 판이하게, 17세기부터는 수보가 현저히 활성화되고 있었던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豐壤趙氏 족보(1678) 서문을 쓴 崔錫鼎이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선에서 宗法이 講修되지 않은지 오래였고, 족보의 편찬은 고려 때에 式目都監에서 世族의 源派를 관장하여 기록한 것 이외에는 들어본 바 없는데, 近世 들어 士夫家에서 점차 보첩을 修明하고 있어서 기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임진왜란을 전후한 족보의 소실은 亂後에 편찬된 많은 족보 서문에서 흔히 언급된 사실이다. 전란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족보의 간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기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眞城李氏族譜』(1600)에서는 왜란 이후 족속이 흩어진 상황이 수보에 나서게 된 이유로 제시된 바 있다. 『南陽洪氏族譜』(土洪, 1576)의 경우처럼 왜란 전에 제작한 목판이 사라지고 인쇄본만 남은 경우도 있지만, 책자까지도 병화에 휩쓸려 사라진 경우가 많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南陽洪氏世譜』(唐洪, 1603), 『延安李氏族譜』(1605), 『慶州裴氏族譜』(1606), 驪興閔氏 족보(1622), 沃川全氏 족보(1635), 『淸風金氏族譜』(1638), 『礪山宋氏世譜』(1664), 『南陽洪氏世譜』(1687) 등의 서발문에서 전란으로 인한

27) 『慕齋集』 권11, 序, 「陽川許氏先世系譜序」.

기존 족보 또는 계보 관련 문헌이 소실되어버린 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특히 『여산송씨세보』 서문에서는 ‘諸家の 譜牒이 兵火에 모두 없어졌다’고 하여 이러한 계보 보존의 위기를 많은 가문이 공통적으로 겪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15세기부터 元敬王后의 本系이고 章順王后, 恭惠王后의 外姓이라는 이유로 왕실족보의 연장선상에서 편찬되어 돈녕부에서 소장해온 여흥민씨의 족보는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丙子胡亂 때 족보가 소실된 경우도 있는데, 『淸風金氏族譜』(1638)는 이를 편찬하던 金寅이 南漢山城에서 扈從하던 중에 초고를 분실하였고, 金堉이 使行 때에 玉河館에 가져가 修撰하던 다른 초고가 살아남아 극적으로 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러 가문에서는 어떻게든 남은 자료를 바탕으로 족보를 복구하고자 노력했다. 경주배씨의 경우 임진왜란 전에 草譜를 땅에 묻었다가 훼손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서 전란의 와중에도 계보기록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안이씨는 임진왜란 전에 裒集한 계보가 모두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린 가운데 全州에 있던 책이 전란을 피해 무사했다. 남양홍씨(토홍)는 洪暹이 1576년에 간행한 舊譜 책자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100년만에 우연히 옛 족보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토대로 1687년에 重刊해낸 것이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 족보 편찬의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문의 계보 지식에 밝은 족보 전문가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문의 족보를 편찬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던 점도 한 가지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살아서 말하는 족보와 다름없다는 의미로 ‘口譜’ 혹은 ‘肉譜’ 등으로 불렸으며, 이후 사족사회에 譜學이 기초적 교양 지식의 하나로 자리잡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鄭崑壽(1538~1602)가 있다. 그는 豐基秦氏 족보(1646)의 수정에도

관여하였는데, 서문 필자 秦尙鴻(1569~1651)이 22세 때 족보 편찬을 착수하면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 봐 ‘東國名家族系の 大家’인 정곤수에게 수정을 의뢰했다고 한다. 정곤수는 족보전문가로서 名族世譜를 거두어 모으는 취미가 있었고, 이 때문에 몇몇 문중에서는 그에게 족보를 빌려줬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沃川全氏 족보(1635)의 舊譜가 榮川 종가에 있었고 兵火 중에도 잘 보존되고 있었으나 정곤수가 빌려간 뒤 가져오지 못하고 화재를 만나 잃었다고 한다. 奉化琴氏 족보(1659) 서문에 따르면, 예전에 정곤수는 금씨의 족보도 빌려갔는데, 그가 죽자 돌려받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興海裴氏 족보(1606)의 서문을 작성한 裴龍吉(1556~1609)의 조부 裴天錫은 일찍이 內外諸譜를 모아 家乘을 편찬하면서 다른 족보에도 여력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그를 ‘肉譜’라고 불렀다고 한다. 『礪山宋氏十二世系』라고 하여 자신의 八高祖를 기준으로 한 父系直系의 가첩을 결합한 독특한 가계기록을 간행한 宋熙業(1586~1611)은 본인의 가계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을 남겼지만, 외손으로서 『東萊鄭氏世譜』(1655)의 편찬에도 관여하면서 족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東萊鄭氏族譜』(1716)을 간행한 慶州府尹 鄭必東(1653~1718)도 ‘肉譜’로 불린 譜學의 대가였다고 한다.

그 밖의 譜學의 대가로는 『氏族源流』를 저술한 趙從耘(1607~1683), 顯宗代 인물로서 보학에 밝아 왕실 족보인 『濬源系譜紀略』을 교정하고 『東國萬姓譜』를 저술한 丁時述 등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정곤수, 배용길, 송희업, 정필동 등과 함께 이들 보학가들은 대체로 16~17세기에 활동한 인물들이다. 이들 이외에도 거명되지 않은 많은 족보 전문가들이 계보기록 편집을 주도하며 계보 문화를 확산하는 기여자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표]의 사례들을 통해서 초기 족보의 편찬 추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선도적인 족보의 파급 효과, 전란으로 인한 계보의 소실, 계보 전문가의 출현과 보학 지식의 확산 등의 여러 계기와 맞물려 17세기 이후로 족보 편찬의 유행이 대세로서 자리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 족보 간행의 방식과 사회적 조건

기록물은 인쇄와 출판을 통해서만 많은 수량의 책자로 재생산되고 다수의 독자에게 공유될 수 있다. 족보의 사회적 영향력도 편찬 그 자체보다도 얼마나 많은 간행본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부표]에 실린 족보들의 刊寫 방식을 분석하여 시기별 추세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족보의 간행은 조선시대 인쇄문화의 특성상 상당한 비용과 정치·사회적 진입장벽이 존재한 사업이었던 점이었던 점에 주목하여, 간행본 족보를 보유하기 위해 각 가문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부표]의 족보를 현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집계하고자 하며, 먼저 현존 확인 족보의 인쇄 방식을 목판과 활자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고 아울러 책수도 () 안에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현존 확인 족보의 인쇄 방식

시기	목판본		활자본		필사본	
	건수	족보명	건수	족보명	건수	족보명
1401 ~ 1500	2	안동권씨족보(3책), 철성이씨족보지도(1책)			2	해주오씨족도, 안동권씨족도
1501 ~ 1600	6	강릉김씨을족보(1책), 문화유씨가정보(11책), 능성구씨성보(1책), 고령신씨어성보(2책), 안동김씨(1책), 진성이씨족보(2책)			4	성주이씨농서군공족보(1책), 의성김씨세보(1책), 사성강목(1책), 고성이씨철령초보
1601 ~ 1650	14	홍양이씨가첩(1책), 진양하씨세보(2책), 창녕성씨족보(1책), 성주이씨족보(1책), 청주한씨세보(1책), 진의이씨성보(2책), 수양세보(1책), 청풍김씨족보(1책), 나주박씨족보(1책), 단양우씨족보(2책), 순천장씨족보(1책), 한산이씨족보(1책), 여산송씨십이세계(1책), 오천정씨족보(2책)	1	고성이씨세보(6책)	6	연안이씨족보(1책), 해주오씨가감잡록(1책), 해주오씨세계(1책), 오천정씨세계(1책), 과평윤씨구보(1책), 광산김씨세계(1책)
1651 ~ 1700	39	동래정씨세보(2책), 의성김씨족보(1책), 순흥안씨족보(2책), 창원공씨족보(1책), 평강채씨신축보(1책), 밀양박씨족보(1책), 도강김씨족보(1책), 여산송씨세보(2책), 순흥안씨족보(3책), 은진송씨족보(1책), 진주소씨족보(2책), 남평문씨족보(3책), 진천송씨족보(2책), 함양박씨족보(2책), 과평윤씨족보(5책), 풍천노씨족보(1책), 반남박씨세보(1책), 김해김씨족보(1책), 선성김씨족보(2책), 진산강씨족보(2책), 梁氏大族譜(2책), 풍천임씨세보(2책), 전주최씨족보(1책),	10	홍주송씨세보(목활자, 1책), 부안임씨세보(목활자, 6책), 광산김씨족보(목활자, 2책), 금산김씨족보(목활자, 1책), 진양하씨족보(1책), 경주이씨족보(목활자, 9책), 경주김씨족보(목활자, 1책), 문화유씨족보(한글자, 5책), 선산김씨족보	3	원주이씨족보(1책), 영계신씨세보(1책), 진양정씨세보(1책)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울산김씨내외보(1책), 청주경씨족보(2책), 홍성장씨족보(2책), 진주이씨족보(1책), 함열남궁씨족보(2책), 의령남씨족보(2책), 창녕조씨족보(5책), 경주김씨족보(1책), 성주이씨족보(3책), 연안이씨족보(3책), 인천이씨족보(1책), 함양박씨족보(1책), 제주양씨대족보(2책), 담양전씨족보(1책), 초계정씨족보(4책), 관운남공선계(1책)		(목활자, 1책), 경산전씨족보 (목활자, 5책)		
1701~ 1720	29	밀양박씨족보(1책), 안동권씨세보/신사보(13책), 대구서씨족보(3책), 영성정씨족보(3책), 순창조씨족보(1책), 창원정씨족보(1책), 해남윤씨족보(3책), 초계정씨족보(4책), 기계유씨족보(3책), 재교침수청주한씨족보(3책), 파주염씨족보(1책), 고양박씨족보(1책), 일선김씨세보(1책), 창녕성씨족보(4책), 벽진이씨세보(5책), 동복오씨족보(2책), 영양남씨족보(1책), 덕수이씨세보(2책), 어흥민씨족보(8책), 청송심씨족보(5책), 함중어씨족보(1책), 강릉김씨세보(4책), 재령이씨족보(2책), 동래정씨족보(6책), 남양홍씨족보(4책), 수양오씨족보(4책), 옥천전씨족보(2책), 연안김씨세보(4책), 진양하씨족보(3책)	10	순흥안씨족보 (목활자, 2책), 평산신씨세보 (목활자, 4책), 연안차씨세보 (목활자, 2책), 삭녕최씨족보 (목활자, 2책), 행주기씨족보 (목활자, 4책), 광산김씨세보 (목활자, 1책), 행주기씨족보 (목활자, 4책), 광산김씨세보 (목활자, 1책), 재령이씨세보 (목활자 2책), 영산영월신씨 합보(목활자, 4책)	3	광산김씨족보(1책), 연안차씨보(1책), 창원황씨족보(2책)
합계	90		21		18	

위 표를 통해서 현존 확인 족보의 인쇄 방식과 시기적 추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성주이씨농서군공족보』(1545), 『의

성김씨세보』(1553)와 같이 16세기의 필사본 족보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필사본보다 목판본 족보의 현존 건수가 현저히 많다. 목판본의 출간이 장기 보존에 매우 유리했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필사본 족보는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坡平尹氏乙酉譜』(1585)의 서문에 의하면, 파평윤씨의 족보는 天順 연간(1457~1464)에 처음 편찬되고, 嘉靖(1522~1566) 초년에 繼編되었지만, 모두 開刊하지 않아서 오래 전해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전해지던 舊譜는 1539년 相國 尹漑가 ‘鋟梓’한 간행본 『坡平尹氏己亥譜』였다.

목판본 족보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15세기에는 성씨별 족보 중 유일하게 『안동권씨성화보』(1476)만이 목판본으로 확인되다가, 16세기에는 후반 위주로 6건 정도의 목판본 족보가 확인되어 족보 간행의 유행이 어느 정도 포착된다. 17세기에 접어들면 목판본 족보의 출현이 본격화되는데, 17세기 후반이 전반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며, 목판본이 활자본에 비해서는 약 4배 정도의 빈도로 확인된다. 18세기초 20년간은 조사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 후반에 비해서 총수가 크게 적지 않다. 이 추세대로라면 17세기 전반 50년간의 목판본 수량은 70여 건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전히 목판본이 활자본에 비해서 비중이 크지만 17세기 후반에 목판본이 활자본보다 4배 많았던 것에 비해서는 3배 정도로 격차가 줄었다.

활자본 족보는 17세기 후반부터 출현하지만 목판본보다는 그 수효가 아주 적은 편이고 대부분 목활자본이다. 다만 『廣州李氏同姓譜』(1610)는 목판본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문 필자 李德馨의 서문에 따르면 그의 증조부(李守忠)가 보았던 『廣陵世譜』라는 舊譜가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16세기에 목활자 족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조사 결과에서는 17세기 전반의 『固城李氏世譜』(1633)가 최초의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목활자본으로 확인되며, 17세기 후반 이후로 활자본의 건수와 비중이 확연히 높아지는 추세가 보인다. 금속활자본은 韓構字로 간행한 『文化柳氏己巳譜』(1688)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외에는 모두 목활자본이다.²⁸⁾

한편 수보 회차가 더해질수록, 또는 현존 족보들의 평균 冊數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간행 방식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현존 족보들의 시기별 책수 추이

	목판본	활자본	필사본
15세기	2책		
16세기	3책		1책
17세기 전반	1.6책	1책	1책
17세기 후반	1.9책	3.2책	1책
18세기 초	3.3책	2.6책	1.3책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판본의 책수가 17세기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5·16세기에 비해 17세기로 접어들면서 책수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15·16세기의 사례 수가 적고, 17세기 이후 1책 규모의 족보가 다수 간행된 결과로 보인다. 활자본도 목판본과 비슷한 수준의 책수를 보여주지만 양자를 비교하기에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필사본은 거의 1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巨帙의 족보는 대부분 刊本으로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현존이 확인되지 않는 족보의 인쇄 방식도 그 서문 내용을

28) 규장각 소장 족보를 대상으로 한 목판본·활자본의 시기적 추세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18세기부터 목판본이 우세한 가운데 활자본의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19세기 이후로는 활자본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기석, 2022, 「조선후기 木板本 족보 간행의 추이와 의미 - 奎章閣 소장 족보를 중심으로 -」, 『朝鮮時代史學報』 103, 朝鮮時代史學會; 권기석, 2022, 「조선후기 족보에서 목활자(木活字) 사용의 확대 - 규장각(奎章閣) 소장 족보를 중심으로 -」, 『韓國史研究』 198, 韓國史研究會.

토대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坡平尹氏己亥譜』(1539)는 후속 족보인 『乙酉譜』(1585) 서문에 간행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東萊鄭氏乙酉譜』(1585)도 해당 족보의 서문에는 간행 사실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후대 족보의 凡例에 이전의 간행 사례 중 하나로 나온다. 이러한 경우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했는데, 서문 내용만으로는 목판본인지 활자본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간행본’인지 ‘필사본’인지만 구별했음을 밝혀 둔다. 현존 확인 족보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대부분 목판본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현존 미확인 족보의 인쇄 방식

시기	간행본		필사본	
	건수	족보명	건수	족보명
1401~1500	1	이준록(문집 일부)	1	강릉김씨왕족도
1501~1600	9	한양조씨, 화순최씨, 파평윤씨, 유의홍내외팔성족보, 순흥안씨, 전의이씨성보, 남양홍씨족보/토홍, 동래정씨/을유보, 파평윤씨/을유보	2	풍천노씨족보, 홍성장씨
1601~1650	6	여산송씨, 함안조씨족보, 여흥민씨, 김녕김씨, 파평윤씨, 기계유씨족보	1	안동권씨을사보
1651~1700	11	한양조씨족보, 청주이씨, 함안조씨, 고흥유씨족보, 해평윤씨, 평양박씨족보, 진주소씨족보, 풍천임씨, 신천김씨, 남양홍씨/토홍, 해주정씨	7	봉화금씨, 관북청주한씨 함흥죽전파보, 함평이씨, 밀성박씨족보, 풍양조씨, 덕수이씨증계도별진, 전의이씨
1701~1720	6	울산박씨족보, 남원윤씨, 풍산홍씨, 능성구씨족보, 배천조씨, 해평윤씨 (금속활자)		
합계	33		11	

위 표에서 15세기는 사실상 추가적으로 파악한 간행본의 사례가 없다. 『彝尊錄』은 문집의 일부분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간행본 족보가 아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전반까지는 꾸준히 간행본의 사례가 이어지다가 현존 확인 족보와 마찬가지로 17세기 후반에는 증가세가 확인된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漢陽趙氏甲申單卷譜』(1524), 『和順崔氏癸巳譜』(1533), 『坡平尹氏己亥譜』(1539), 『柳義興內外八姓族譜』(1544), 『順興安氏丙午譜』(1546)와 같이 현존이 확인되지 않는 16세기 전반의 간행본 추정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18세기초의 증가세가 그다지 확연하지 않은데, 이 기간은 본고에서 현존 족보 이외에는 별도로 서발문 등의 자료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충분한 사례가 검출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행본 가운데 목판본과 활자본을 확연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흔히 목판으로 간행하게 되면 서발문에서 ‘劓鬪’이나 ‘入梓’와 같은 표현을 쓰고, 활자본은 ‘鑄字’ 등으로 표현하는데, 『慶州金氏族譜』(1685)처럼 활자본인데도 ‘劓鬪氏’에게 맡겼다고 표현한 예가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北漢山城 重興寺에서鑄字를 써서 인출했음이 서문에 명시된 『海平尹氏乙未譜』(1715)의 사례도 있다.

필사본 상태로 족보를 편집한 이후 간행 작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후속 족보의 서발문 등의 언급을 통해서 미간행 상태로 그쳤음을 알 수 있다. 『豐川盧氏嘉靖丙申譜』(1536)는 初刊本 『豐川盧氏壬戌譜』(1682)의 서문에서 나오는 ‘계보를 수집하여 서문까지 써놓았으나 간행하지 못했다’는 언급을 통해서 미간행 족보였음을 알 수 있다. 興城張氏 족보(1566)는 족보 편찬시에 작성된 張倪의 서문에는 간행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1690년의 초간본 『興城張氏族譜』의 서문에서 장현의 족보를 ‘草譜’라고 언급하여 미간행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密城朴氏族譜』(1677)도 편찬자 朴信圭가 간행하지 못하였는데, 『密陽朴氏族譜』(1701)의 서문에 의하면 再從弟 善山府使 朴重圭 등이 이어받아 완성해 간행했다고 한다. 豐壤趙氏 족보(1678)도 해당 서

발문에는 간행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풍양조씨족보의 初刊譜는 1731년 趙顯命에 의해 간행되었음²⁹⁾을 미루어 보면 미간행 족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족보 서문에서 필사 사실을 직접 언급한 경우도 다수 있다. 沃川全氏 족보(1635) 서문에는 간행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으며, 후손가에서 구득한 1통을 베껴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필사본으로 보인다. 豊基秦氏 족보(1646)도 서문에 草冊을 제작했다는 언급만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필사본으로 그친 것으로 생각된다. 咸平李氏 족보(1663)도 서문 필자 李滋의 설명에 따르면, 宗弟 李滂가 보첩을 함릉군 李澗의 집에서 구득하여 謄寫하고자 하면서 자신에게 머리말을 청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서문 작성 시점까지 필사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 여러 벌을 만들어낸 경우도 확인된다. 奉化琴氏 족보(1659)는 여러 문중인이 집단적으로 협력하여 편찬했는데 同宗 1인이 轉寫에 힘썼고 1질만으로는 후일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 베껴서 각자 간직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사본 여러 책을 만들어낸 경우로 보인다. 『關北清州韓氏咸興柵田派譜』(1663)는 함흥 일대에 거주하는 가계의 족보로 생각되는데, 4권을 만들어 4면에 비치하였다고 한다.

다음으로 족보의 간행 지역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 표들과 마찬가지로 현존 족보는 목판본과 활자본을 구분하였고, 현존 미확인 족보는 구분하지 않았다.

29) 『豊壤趙氏世譜』(奎1824, 1826년), 趙顯命 발문(辛亥, 1731년)

【표 5】간행본 족보의 발간 지역

간행지역	합계	목판본(현존)		활자본(현존)		간행본(미확인)	
		건수	족보명	건수	족보명	건수	족보명
서울 (洛, 漢師)	5	1	驪興閔氏族譜	1	慶州金氏族譜	3	信川金氏, 海州鄭氏, 白川趙氏
安東 (永嘉)	5	3	安東權氏成化譜, 宜寧南氏族譜, 英陽南氏族譜	0		2	順興安氏, 南原尹氏
慶尙監營 (大丘)	3	3	杞溪俞氏族譜, 德水李氏世譜, 南陽洪氏族譜/唐洪	0		0	
慶州	3	3	東萊鄭氏世譜, 東萊鄭氏族譜, 平康蔡氏辛丑譜	0		0	
淸州(西原)	3	2	綾城具氏姓譜, 淸州韓氏世譜	0		1	礪山宋氏
高靈	2	2	咸安趙氏, 高陽朴氏族譜	0		0	
榮川	2	2	全義李氏姓譜, 羅州朴氏族譜	0		0	
義城	2	2	順興安氏族譜, 廣州李氏同姓譜	0		0	
全羅監營 (全州)	2	1	大丘徐氏族譜	0		1	坡平尹氏
平安監營 (平壤)	2	2	延安李氏族譜, 延安金氏世譜	0		0	
陝川	2	2	晉陽河氏世譜, 南平文氏族譜	0		0	
黃海監營	2	1	豐川任氏世譜	0		1	海平尹氏
江陵	1	1	江陵金氏世譜	0		0	
江原監營 (原州)	1	1	韓山李氏族譜	0		0	
古阜	1	1	丹陽禹氏族譜	0		0	
公州	1	1	同福吳氏族譜	0		0	
關東	1	1	星州李氏族譜/萬曆癸丑譜	0		0	

사학연구 제156호(2024. 12)

冠山	1	1	仁川李氏族譜	0	0	
光山	1	1	咸陽朴氏族譜	0	0	
龜城	1	0		0	1	柳義興內外八 姓族譜
羅州	1	1	晉州蘇氏族譜	0	0	
南原	1	1	경주김씨족보	0	0	
南漢山城	1	1	晉山姜氏族譜	0	0	
寧海	1	1	漢陽趙氏族譜	0	0	
丹陽	1	1	興陽李氏家牒	0	0	
梁山	1	1	義城金氏族譜	0	0	
連山	1	1	杞溪俞氏族譜	0	0	
禮安	1	1	眞城李氏族譜	0	0	
龍仁	1	0		1	靈山靈越 辛氏合譜	0
綾陽	1	1	梁氏大族譜	0	0	
茂長	1	1	靈城丁氏族譜	0	0	
聞韶	1	1	文化柳氏嘉靖譜	0	0	
扶安 (+金堤)	1	0		0	1	驪興閔氏
北漢山城	1	0		0	1	海平尹氏
星州	1	1	星州李氏族譜	0	0	
水原	1	1	昌原孔氏族譜	0	0	
順興	1	1	青松沈氏族譜	0	0	
宜寧	1	1	潭陽田氏族譜	0	0	
伊川	1	1	潘南朴氏世譜	0	0	
一善府	1	1	淸風金氏族譜	0	0	
全義	1	0		0	1	全義李氏姓譜
定平	1	0		0	1	豐川任氏
稷山	1	1	高靈申氏/漁城譜	0	0	
鎭岑	1	1	坡州廉氏族譜	0	0	
晉州	1	1	晉陽河氏族譜	0	0	
昌寧	1	1	昌寧成氏族譜	0	0	
忠淸監營	1	0		0	1	坡平尹氏
咸鏡監營	1	1	宜寧南氏族譜	0	0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咸興)						
咸昌	1	0		0	1	漢陽趙氏
和順, 南平	1	1	咸陽朴氏族譜	0	0	
黃海兵營	1	1	昌寧曹氏族譜	0	0	
興陽	1	1	礪山宋氏世譜	0	0	
興海	1	1	昌寧成氏族譜	0	0	

위 표의 간행 지역은 특별히 어느 곳에 편중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 郡縣에 산재해 있다. 그 까닭은 후술할 바와 같이 지방관 주도의 간행이 일반적이었고, 개인적 연고가 없는 부임지에서 간행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임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기에 여러 차례 간행이 이루어진 고을도 많아야 3~5회 정도에 그친다. 또한 道の 행정중심지인 監營이 소재한 고을인 全州, 大丘 등에 집중되는 경향도 그다지 보이지 않는데, 후술할 바와 같이 관찰사가 간행을 주도하더라도 반드시 감영에서 작업을 진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義城에서 간행된 『眞城李氏族譜』(1600)는 陶山書院에서 退溪 李滉의 문집과 함께 지방 문중 인원의 협력에 힘입은 것으로서 지방관의 역할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활자본은 간행지가 잘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과 북한산성에서 간행된 사례가 있다. 활자본 간행은 지방관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간행 완료 이후 목판의 소장처는 간행지와는 다른 문중과 관련된 곳으로 이송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지방관이 부임한 인연으로 간행지가 된 지역이 해당 성관의 연고와는 무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6】간행 이후 새로운 藏板地로의 移送 사례

족보명	연대	原刊行地	藏板地	비고
順興安氏丙午譜	1546년	安東	豐基郡	지방관 간행 후 해당 성씨의 貫鄉으로 옮김
全義李氏姓譜	1574년	榮川	全義 碑巖寺	지방관 간행 후 관향의 사찰로 옮김
星州李氏萬曆癸丑譜	1617년	關東	星州 安峯影堂	관향의 影堂으로 옮기고 승려에게 지키도록 함
全義李氏姓譜	1634년	榮川	本郡 浮石寺	같은 관내의 사찰로 옮김
杞溪俞氏族譜	1645년	關東(강원도 추정)	淸道 雲門寺	강원도 관찰사가 간행하여 該道の 사찰로 옮김
咸安趙氏 족보	1664년	高靈 추정	咸安 漁溪先祖 사당	지방관 간행 후 관향의 사당으로 옮기고 咸安에 있는 동성인에게 지키도록 함
晉州蘇氏族譜	1670년	羅州牧	益山 炭谷 東山寺	나주목에서 간행한 뒤 관자를 다른 지역의 사찰로 옮긴 것으로 보아 지방관 주도의 간행으로 보임
晉山姜氏南漢譜	1685년	江都 추정	南漢 天柱寺	지방관 간행 후 옮김
宜寧南氏癸酉譜	1693년	咸營(咸興)	宜寧 密直府君 墓下	咸境道按節使 南益熏이 간행한 것을 그 아우 慶州府尹 南致熏이 海路로 慶州府로 운반해왔다가, 그가 퇴직하자 晉州牧使 南至熏이 貫鄉 宜寧 密直府君 墓下로 이송한 뒤 藏板閣을 세움
密陽朴氏族譜	1701년	永嘉(安東)	洪濟菴	
昌寧成氏族譜	1709년	興海郡	昌寧 泉谷寺	지방관 간행 후 관향의 사찰에 藏板室을 따로 두며 刻手僧에게 보호를 맡기고 位畝를 두면서 내외손이 本鄉에 부임하면 점검하도록 함

해당 사례는 모두 지방관이 부임지에서 간행을 마친 뒤, 다른 보관처를 찾은 경우로 파악된다. 장판지는 해당 성관과 인연이 깊은 貫鄉인 경우가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많았는데, 전체 11건 중 순흥안씨, 전의이씨(1574년), 성주이씨, 함안조씨, 의령남씨, 창녕성씨의 6건이 관향이었다. 또한 전의이씨 2종, 성주이씨, 기계유씨, 진주소씨, 진산강씨, 밀양박씨, 창녕성씨의 8건이 사찰로 이송한 경우라서 당시 사족 가문에서 사찰을 인쇄 작업뿐만 아니라 목판을 보존하는 장소로도 활용하였고, 『창녕성씨족보』의 예에서 드러나듯 승려들에게 판각뿐만 아니라 완성된 목판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지웠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령남씨와 창녕성씨의 사례처럼 17세기 후반경에 譜板 보존을 위한 특별한 시설물을 세우기도 한 점도 주목된다.

많은 족보 간행 사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지방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지방관 주도의 간행 사례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지방관 주도의 족보 간행 사례

족보명	간행년	간행자	간행지	비고
安東權氏成化譜	1476년 (성종 7)	경상감사 尹壕	安東府	편집 과정에서 상주관관 朴元昌, 대구부사 崔灝元 협력 (내외손 지방관 협력)
漢陽趙氏	1524년 (중종 19)	咸昌 수령	咸昌 추정	趙元紀가 편찬한 족보를 得姓姪 함창 수령 趙世楨에게 보충하고 간행하도록 맡김
和順崔氏 (癸巳譜)	1533년 (중종 28)	比安縣監 崔善卿	比安 추정	崔世演의 구보를 얻어서 간행
柳義興內外八 姓族譜	1544년 (중종 39)	龜城 수령 柳希潛	龜城 추정	개인적 가계기록에 가까움에도 지방관으로 간행했음
順興安氏丙午譜	1546년 (명종 1)	안동부사 成謹	安東 추정	경상도관찰사 安璋 등 여러 내외손 출신 지방관들과 협력했으며, 직함과 성명을 열거
文化柳氏世譜 (嘉靖譜)	1565년 (명종 20)	영남 방백 李友閔, 호남 방백 南宮枕, 호서 방백 柳潛 등	聞韶	여러 번의 간행 좌절 끝에 광범위한 내외손 지방관들의 협력으로 간행

綾城具氏姓譜 (乙亥譜)	1576년 (선조 9)	호서 방백 具鳳齡	淸州 菩薩寺	지방관이 관내의 사찰에서 간행 진행. 내외손 지방관들의 협력으로 간행
高靈申氏 (漁城譜)	1578년 (선조 11)	충청도 관찰사 申湛	稷山縣 龜巖寺	지방관이 관내의 사찰에서 간행 진행
安東金氏 (庚辰譜)	1580년 (선조 13)	천안군수 金昉 → 충청도절도사 金鏞	天安 추정	간행 작업을 시작한 지방관이 일을 마치지 못하자 다른 지방관이 이어서 마침
坡平尹氏 (乙酉譜)	1585년 (선조 18)	충청도사 尹勉	湖西 감영 추정	충청도사가 호서에 佐幕하면서 간행
延安李氏族譜	1605년 (선조 38)	호서방백 李弘老	湖西 감영 추정	호서방백이 간행을 자임
晉陽河氏世譜	1606년 (선조 39)	경상도관찰사 李時彦	陝川 海印寺	하씨의 외손 李時彦이 本道 제입 중에 도움
廣州李氏同姓譜	1610년 (광해군 2)	聞韶 수령 李士修	義城縣	
礪山宋氏	1610년 (광해군 2)	淸州鎭兵馬僉節制 使 宋駟	淸州	당진군수 宋克訥, 단양군수 宋瑄, 전의군수 宋聘이 같은 도에 부임하여 협력함
昌寧成氏族譜	1616년 (광해군 8)	경상도관찰사 成晉善	昌寧 觀龍寺	경상도관찰사 부임후 창녕에서 姓族을 모으고 선조 묘소에 제사를 올리면서 죽인과 상의하여 간행
星州李氏族譜	1617년 (광해군 9)	강원도관찰사 李穡	關東 (강원도)	關東을 按察했다고 표현
淸州韓氏世譜	1617년 (광해군 9)	西原縣監 韓孝仲	西原(淸州) 菩薩寺	在湖宗人이 재물을 내놓아 刊役을 도움. 여러 有司들의 협력이 있었고, 지방 향리와 刻手를 맡은 승려들이 관여함
驪興閔氏	1622년 (광해군 14)	부안현감 閔機, 김제군수 閔大倫	扶安 또는 金堤 추정	부안현감과 김제군수가 동시에 부임하여 간행할 수 있었음
全義李氏姓譜	1634년 (인조 12)	榮川郡守 李厚基	榮川 추정	
坡平尹氏	1634년 (인조 12)	全州府尹 尹煌	全州	만력을유년(1585년)과 晉陽牧使의 간행이 있었음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海州吳氏	1634년 (인조 12)	황해도관찰사 吳翻	海州 추정	간행 여부는 확실히 명시되지 않음
淸風金氏族譜	1638년 (인조 16)	嶺南督郵 金仁 등	一善 추정	충청도관찰사 金堉 등의 협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羅州朴氏族譜 (潘翰朴氏壬午譜)	1642년 (인조 20)	榮川 수령 朴濠, 察訪 朴檜茂	榮川 추정	
韓山李氏族譜	1643년 (인조 21)	강원도 관찰사 李德洙, 찰방 李興祿	강원감영 추정	
杞溪俞氏族譜	1645년 (인조 23)	경상도관찰사 俞楸	경상감영 추정	목판은 淸道 雲門寺에 보관
漢陽趙氏族譜	1651년 (효종 2)	寧海府使 趙贊	寧海府 추정	서울의 관직자들이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비용을 모으고 계보 편집한 뒤, 지방관으로 부임한 인물이 최종적으로 간행함
東萊鄭氏世譜	1655년 (효종 6)	慶州府尹 鄭良弼	慶州府 추정	족보 편집과 간행에 의손인 고양군수 宋熙業이 참여함
淸州李氏	1657년 (효종 8)	慶州通判 李宗儉	慶州	慶州牧使 李天基(延安李氏)가 서문을 씀
順興安氏族譜	1659년 (효종 10)	聞韶使君 安應昌	義城(聞韶)	
平康蔡氏辛丑譜	1661년 (현종 2)	慶州府尹 蔡忠元	慶州	
咸安趙氏	1664년 (현종 5)	高靈縣監 趙逢源	高靈 추정	본관인 咸安과 가까운 고을이라서 族黨과 협력할 수 있었음
海平尹氏	1676년 (숙종 2)	황해도관찰사 尹堦	黃海監營 추정	
咸陽朴氏族譜	1678년 (숙종 4)	和順倅, 南平倅	화순 또는 남평 추정	편찬자 朴恬과 同宗人인 화순과 남평의 수령이 工匠을 모으고 판각함
晉州蘇氏族譜	1681년 (숙종 7)	강릉부사 蘇斗山	江陵 추정	강릉부사 蘇斗山이 생원 蘇雲翻 등과 함께 모의하여 판각함

豐川任氏 (定平本)	1681년 (숙종 7)	정평부사 任映	定平府	정평부사로 부임 전인 병진년(1676)에 합천군에 부임하고 宗姪 任弘望이蔚山府에 부임하여 간행을 합의했으나 이루기 전에 歸任함. 1681년 봄에 松都少尹에서 定平府로 移拜되어 간행함
坡平尹氏族譜	1682년 (숙종 8)	함경방백 尹趾善	咸鏡監營 추정	참봉 尹璣이 미처 간행하지 않은 것을 윤지선이 이어받아 간행
豐川盧氏族譜	1682년 (숙종 8)	호남좌수사 盧銓	미확인	
潘南朴氏族譜	1683년 (숙종 9)	利川縣監 朴泰輔	伊川縣	
晉山姜氏族譜	1685년 (숙종 11)	沁都 經歷 姜碩老	江都 추정	長延都護府使 姜碩老가 부임하여 간행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파직되어 집에 돌아오게 되자 강화 경력 강석로가 이어받아서 간행
豐川任氏族譜	1686년 (숙종 12)	황해도관찰사 任弘望	황해감영 추정	1682년 定平本을 보완하여 간행
宜寧南氏族譜 (癸酉譜)	1693년 (숙종 19)	함경도관찰사 南益熏	咸營(咸興)	목관은 장관각을 세워 宜寧에 보존
昌寧曹氏族譜	1693년 (숙종 19)	황해도병마절도사 曹廷亮	黃海兵營	
海州鄭氏	1694년 (숙종 20)	任實郡守 鄭翊周, 順興府使 鄭重昌	서울 靑坡洞	문중의 집단적 협력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刊役에 지방관이 각수를 보내어 도움
密陽朴氏族譜	1701년 (숙종 27)	安東府使 朴紳, 一善 수령 朴重圭	安東府	이전에 朴紳이 完山通判이였을 때 동종 朴信圭가 관찰사였는데 간행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적이 있음.
淳昌趙氏族譜	1702년 (숙종 28)	慶尙右道兵馬節度使 趙爾重	兵營 추정	
杞溪俞氏族譜	1704년 (숙종 30)	連山縣監 俞命聃	連山縣	중증에서 동시에 지방관이 된 자들이 廩餘를 나누어 도왔고, 德裕에서 판재를 구하고 管城(沃川)에서 장인을 구함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南原尹氏	1706년 (숙종 32)	安東府使 尹德駿	安東府	
昌寧成氏族譜	1709년 (숙종 35)	興海郡守 成瑛	興海郡	
豐山洪氏	1709년 (숙종 35)	경상도관찰사 洪萬朝	경상감영 추정	
德水李氏世譜	1713년 (숙종 39)	경상도관찰사 李坦	경상감영 추정	
東萊鄭氏族譜 (丙申譜)	1716년 (숙종 42)	慶州府尹 鄭必東	慶州府	
晉陽河氏族譜 (己亥譜)	1719년 (숙종 45)	초계현감 河沃, 사천현감 河必圖 등	晉州 靑谷寺	

지방관 주도의 간행은 상기 표와 같이 52건 정도가 보이는데, 이들 중 현존 확인본은 모두 목판본으로 확인되므로 현존 미확인본도 목판본일 가능성이 높다. 【표 2】에서 확인한 현존 확인 목판본이 모두 90건이고, 【표 4】에서 현존이 확인되지 않은 간행본 33건도 대부분 목판본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兩者를 합친 123건 중에서 지방관이 주도한 간행본 52건은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비율이다. 하지만 필자의 조사가 미흡해서 지방관 주도의 간행이었음을 미처 밝혀내지 못한 경우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³⁰⁾ 전체 목판본의 절반 정도는 지방관의 주도로 간행된 셈이다. 한편 족보를 간행한 지방관 중에는 兵使 등 外職 武班이나 察訪 등 驛站 관련 관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지방의 수령이 부임지에서 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찰사가 관여할 경우 간행 장소는 감영이 되기도 하고 관내의 군현이 되기도 하였는데, 위 표에서도 관찰사가 주도했지만 감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

30) 국내 소장기관에서 현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기본적인 서지사항이나 서발문이나 刊記의 존재 정도만 확인하고 자료 실물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지 않은 사례로 『安東權氏成化譜』(1476), 『文化柳氏嘉靖譜』(1565), 『高靈申氏漁城譜』(1578), 『晉陽河氏世譜』(1606), 『昌寧成氏族譜』(1616) 등을 찾을 수 있다. 대체로 15세기~17세기초의 이른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조선전기 감영의 위치나 기능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안동권씨성화보』가 안동부에서 간행되고, 『창녕성씨족보』가 창녕에서 간행된 예에서 보이듯 성관의 연고지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지방관이 주도하더라도 실제 작업장은 관아가 아닌 관내의 사찰이 되기도 했다. 예컨대 『綾城具氏姓譜』(1576)와 『淸州韓氏世譜』(1617)는 청주菩薩寺에서, 『고령신씨어성보』(1578)는 직산龜巖寺에서, 『晉陽河氏己亥譜』(1719)는晉州靑谷寺에서 간행되었다. 두 종의 족보를 간행한 것으로 확인된 보살사에 승려 刻手들이 관각 작업을 맡았던 사실에서 드러나듯이,³¹⁾ 사찰이 보유하고 있었던 인쇄 작업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시대 사찰은 관청의 요구에 따라 목판의 생산과 보존을 담당하고 있었다.³²⁾

위 표에서 단일한 인물이 아닌 혈연관계가 있는 여러 지방관이 협력하여 간행 작업을 진행한 사례들도 확인되는데, 『文化柳氏嘉靖譜』(1565), 『安東金氏庚辰譜』(1580), 驪興閔氏 족보(1622), 『潘南朴氏壬午譜』(1642), 『韓山李氏族譜』(1643), 『咸陽朴氏族譜』(1678), 海州鄭氏 족보(1694), 『密陽朴氏族譜』(1701), 『晉州河氏己亥譜』(1719) 등이다. 이들은 족보 편찬에 있어서 다수에 의한 협력 양상을 보여주며, 족보 간행의 정치·사회적 기반

31) 『淸州韓氏世譜』(1617)의 권말에는 惠智, 曇晟, 愼秀, 智後, 智玄 등 刻字를 맡은 승려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32) 조선시대 寺刹이 관청과 사대부의 출판 수요를 담당하고 있었음은 다음 연구를 참고.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2013, 『유교책판, 나무에 繡를 놓다』; 옥영정, 2014, 「조선시대 책판은 어떻게 관리되었나」,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이태영, 2018, 「완영책판과 전라감영의 인쇄문화」, 『전라감영 책판의 문화사적 가치와 가능성』, 전북대학교 박물관.

과 관련된 거시적 추세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16세기 이전에는 내외손 범위의 지방관들이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順興安氏丙午譜』(1546)는 안동부사 成謹의 역할이 크지만, 경상도관찰사 安瑋를 비롯하여 같은 도에 함께 임용된 金舜臯 등 여러 내외손 지방관들이 협력하였다. 이렇게 광범위한 협력이 있다보니 경상도 金海의 善寫人 朴永根이 글씨를 쓰고, 인근 고을의 각수까지 끌어 모을 수 있었다.

『文化柳氏嘉靖譜』(1565)도 또한 내외손 범위의 지방관이 대거 참여한 사례인데, 개인적 작업의 한계와 함께 족보 간행에서 지방관 배출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부임지의 제정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족보는 편찬자 柳希潛이 18년에 걸쳐 계보를 수집하고 정리한 결과물인데, 그는 1542년 義興에 부임했을 때 그 이전 단계 작업물인 『유의 흥내외팔성족보』를 간행한 바 있었으나, 문화유씨 전체의 족보는 편질이 너무 커서 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1554년에는 경주부윤 柳智善과 경상감사 鄭彦懣이 함께 간행하려다가 흉년으로 인해 미수로 그쳤고, 필사본 2분을 베껴 놓아 나중에 간행할 원고로 삼았다. 결국 1565년 영남, 호남, 호서 관찰사와 3도에 있는 내외손 출신 지방관의 협력에 의해서 간행이 성사될 수 있었다.

『綾城具氏姓譜』(1576)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同姓 위주의 족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외손 관계로 얽힌 지방관 네트워크에 힘입어 간행될 수 있었다. ‘外14代孫’이라 자칭한 幼學 邊循이 지은 서문에 따르면, 이 족보는 모든 간행 경비를 외후손으로서 管下의 수령이 된 이들이 마련하여 조달하였고, 兵使·水使 등 兩鎭守와 먼 후손들도 협조하였다고 한다.

16세기 이전의 사례는 다수의 내외손 출신의 지방관들이 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17세기 이후로는 외손의 참여가 다소 위축되어서인지 개별

적인 참여만이 확인된다. 예컨대 『晉陽河氏世譜』(1606)는 洗馬 河渾이 족보를 증보하여 목판에 새길 것을 도모하다가 힘이 부족하여 하지 못하다가, 文孝公 河演의 外裔인 李時彦이 경상도에 부임하여 간행을 도왔다. 『동래정씨세보』(1655)는 족보 편찬 및 간행 작업에 외손인 고양군수 宋熙業이 참여하였다. 『창녕성씨족보』(1709)는 홍해군수 成煥이 간행했는데, 경상도관찰사 洪萬朝가 外裔로서 서문을 썼다. 성환이 완성된 세보를 가지고 達城의 宣化堂으로 방문하여 홍만조에게 서문을 부탁했다는 언급으로 보아, 홍만조가 수보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 같은 해 홍만조가 本宗 豐山洪氏 족보 간행을 주관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한 정황이 역력하다.

반면 17세기 이후로는 주로 同姓 지방관 네트워크가 확인된다. 礪山宋氏 족보(1610)는 淸州에 兵馬僉節制使로서 부임한 宋駟의 주도로 간행되었는데, 같은 도에 부임한 당진군수 宋克訥, 단양군수 宋瑄, 전의군수 宋聘 등이 협력하여 성사되었다. 앞 시기에 있었던 내외손 연계망에서 외손이 제외되어 있는 모양새라 할 수 있다. 『청풍김씨족보』(1638)는 편찬자 金寅이 嶺南督郵가 되어 一善府에 도달하여 간행하였는데, 당시 충청도 관찰사였던 金堉과 전 현감 金垆의 협조가 있었다. 지방관 부임은 족보 발간의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성 간 결집의 계기이기도 했다. 황해도관찰사 任弘望은 『豐川任氏世譜』(1686)를 간행하면서 관내에 姓鄉인 豐川이 있어서 道內 宗人의 모임을 그곳에서 갖고 옛 묘소를 돌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관 주도의 간행은 초기 족보 간행의 성사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요건 중 하나였고, 시기적으로 편차가 있기는 했으나 내외손 관계 혹은 동성 위주로 결집된 다수의 지방관들이 협력하기도 하였다. 『柳義興內外八姓族譜』(1544)와 같은 개인적 가계기록도 龜城에 부임한 유희잠이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지방관으로 부임한

개인의 역량만으로도 간행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南原尹氏 족보(1706)를 간행한 安東府使 尹德駿은 족보가 완성된 뒤에도 劄劄할 길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다 安東 부임으로 捐俸하여 간행이 가능해졌다면서, 족보는 宦力이 아니면 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방관 주도의 간행이 언제나 용이했던 것은 아니었다. 淸州李氏 족보(1657)는 경주통판 李宗儉이 ‘봉급을 모아’ 인쇄하여 널리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관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상투적 표현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족보 간행이 公務가 아닌 私事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 그러다 보니 앞서 『문화유씨가정보』의 사례에서 보았듯, 족보 간행을 추진하는 지방관은 부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豐川任氏 족보(1681)는 定平府使 任映이 간행했는데, 본부가 비록 殘弊하지만 재물과 장인을 모아 劄劄하였다고 하였다. 즉 부임한 고을의 사정에 따라서 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는 의미이다.

뜻하지 않은 인사이동으로 간행 완료시까지 임지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간행이 어려움을 겪는 변수가 되었다. 『晉山姜氏南漢譜』(1685)는 長潭(長延)府使 姜碩耆가 호남 茂豐에 재직 중일 때 종인으로서 동시에 出宰한 자들과 상의하여 편집하였고, 장연 고을에 부임하여 간행하는 공정이 거의 끝날 무렵 파직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 후 沁都(江都) 經歷 姜碩老가 이어서 작업을 하여 인쇄를 마칠 수 있었다.

지방관 주도로 간행할 기회를 잡지 못하여 간행이 미수에 그친 사례도 많다. 『和順崔氏丁丑譜』(1517)의 서문에는 필자 崔世演이 成歡道察訪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료를 모아 족보를 開刊하려 했으나 힘이 부족하여 자손에게 뜻을 잇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가문은 比安縣監 崔善卿이 임지에서 『和順崔氏癸巳譜』(1533)를 간행할 때까지 계속 간행보를 내놓지 못하였다. 『安東金氏庚辰譜』(1580)는 1519년에 金鉞이 이미 편집한 족

보를 토대로 추가 수정을 거쳐 간행한 것으로 60년 이상의 시차가 난다. 全義李氏는 1634년에 목판본 『全義李氏姓譜』를 출간한 이래로 1694년에 도 이어서 修譜하였으나 간행하지 못했고, 1711년에도 『辛卯草譜』로 불리는 필사본 4권만 내놓았다가 1754년에 간행본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³³⁾ 1711년 「辛卯草譜跋」에 의하면 이 족보를 간행하지 못한 것은 재력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문중 내에서 ‘饒邑’의 수령이 배출되어 劄冊을 맡길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능성구씨병신보』(1716)는 1666년에 宋時烈이 작성한 서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때는 재정이 결핍되어 간행 작업을 중단했다가 50년이 지난 1716년에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지방관이 주도하는 간행 작업의 한계에 대한 대응책은 同族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협력이었다. 17세기 이후로 門中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하는 사례들이 보이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지방관들의 집단적 협력과 구분되는 점은 외직 수행과 무관한 同宗人들이 ‘有司’와 같은 직임을 맡으면서 修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지방관이 주도하면서도 문중조직의 참여가 함께 확인되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淸州韓氏世譜』(1617)는 진 참봉 韓赫 등으로 구성된 有司들이 존재했고, 色吏로서 同姓 戶長 韓嗣宗 등이 참여하였다. 『漢陽趙氏族譜』(1651)도 조직적인 수보에 의한 간행과 지방관의 역할이 결합된 사례이다. 1647년경에 掌令 趙重呂, 經歷 趙松年, 成均 趙又新, 引儀 趙休, 直長 趙志孟, 衛率 趙備 등이 都下에 모여서 보첩 중수를 의논하였는데, 서울에 있는 宗人 10인을 有司로 삼고 사망의 宗人에게 두루 통지하면서, 各道와 各邑에 有司를 선정했다고 한다. 그 후 조송년이 金山郡守가 되고, 그 족형 趙昌門이 奉化縣監으로 나가서 성사되는 줄 알았으나 조송년은 재목과 공장을 수집하다가 사망하고, 조창문은 파직되어 돌아

33) 『全義李氏族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53, 1754년), 李庭緯 서문(1754년)

오고 말았다. 1651년 여름에 趙贊이 다행히 영해에 부임하여 60일 만에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때 영해부의 속현인 英陽에 姓親家가 살고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였다.

『延安金氏世譜』(1719)는 平壤府에서 간행되었는데, 서문 필자인 平壤庶尹 金相助은 役事가 너무 커서 雄府大邑의 관원이 되기를 기대하던 차에 평양에 부임하게 되자 이 읍이 아니면 譜事를 끝마칠 수 없을 것이라 여기고 일이 번잡하다는 주위의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부임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本邑에서 재목을 구하고 먼 사찰에서 工匠을 부르면서, 關西諸邑의 죽인이 족보에 붙여줄 것을 청하자 繕寫, 校讎, 董視 등의 일을 각자 재능에 따라 맡겼다. 지방관으로 부임하기도 쉽지 않고, 부임 하더라도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문중 구성원들의 조직적인 협력을 받은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간행본 족보들 중에서도 아예 지방관이 관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全義李氏姓譜』(1574)는 내외자손 중 녹을 먹는 자 50여 인이 재물을 내고 外姓 安璐와 文琦가 監董하는 가운데 工匠을 모아 간행했다고 한다. 내외손 관료의 집단적 협력은 확인되지만 부임지에서 간행 작업을 진행한 지방관은 확인되지 않는다.

『眞城李氏族譜』(1600)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관 배출과 전혀 무관하게 서원을 중심으로 지방 사족사회의 역량으로 간행된 점이 특징이다. 退溪 李滉의 손자인 정량 李詠道가 族中에 모의하여 계보를 정리했고, 前縣監 李鼎會, 進士 李亨男, 幼學 李有道 등이 편찬 작업을 진행하여 현직 지방관의 참여가 보이지 않는다. 간행 비용도 米布의 형태로 근처 자손에게서 거두었고, 陶山書院에서 문집 간행과 겸하여 족보를 인쇄하였다.

서울에서 간행된 족보들 중에 지방관의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눈에 띄어 주목된다. 宗人의 조직적 협력의 결과인지, 중앙의 발달된 인쇄출판 기반을 활용한 것인지 검토가 요망된다. 『慶州金氏族譜』(1685)는 서울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서문 내용 중에 지방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보첩을 수집하고 교정하여 간행에 넘긴 인물들의 직임이 ‘上庠’(성균관 생원)이다. 信川金氏 족보(1685)도 서울(漢師)에서 간행되었는데 서문 내용만으로는 목판본인지 활자본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지방관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서와 호남에 거주하는 후예 약간인이 함께 모의하고 發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로 와서 재물과 공인을 모아서 10본을 인출하였다고 한다. 『南陽洪氏世譜』(1687)도 목판본인지 활자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지방관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는다. 서문의 내용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족인들이 주도하여 여러 자손에게 통문을 돌리고 收單을 하며 집안 형편에 따라 돈을 내서 판각비를 충당하게 하였다고 한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활자인쇄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서울의 인쇄 환경을 감안하면 활자본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驪興閔氏族譜』(1713)은 목판으로서 刊記에 京都(서울)의 교서관에서 간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의 서적 간행 기관인 교서관을 활용한 점이 특색이다.

간행 비용을 지방관의 ‘捐俸’ 등으로 표현되는 관권이 아니라 다수 종인의 모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지방관 배출의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海州鄭氏 족보(1694)는 宗契의 재물 절반을 들여 판목을 구입하고 수공비로 사용했고, 門丈 鄭重徽 등 경외의 일가들이 자기의 봉록을 털어서 서울 靑坡洞에서 4개월만에 간역을 마쳤다. 또한 임실군수로 부임한 鄭翊周와 順興의 수령으로 부임한 鄭重昌 등이 刻手 2~3명씩을 보내주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문중의 집단적 협력과 재물 마련으로 간행이 되었고, 지방관의 역할은 인력을 지원해서 올려보내는 정도에 그

쳤음을 알 수 있다.

白川趙氏 족보(1716)는 서울에서 諸宗이 모여 간행 작업을 진행하였고, 外裔 盧世泰가 氏系에 밝아 편집에 참여하였다. 그러면서 보첩을 간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官俸으로 재물을 삼고 官工에게 일을 시키기에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성취하지만, 우리 종인은 私財를 다하고 私力을 다하였기에 반 년 만에 일을 마쳤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지방관 주도 간행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다른 대안을 찾은 경우도 있었다. 海平尹氏 족보(1715)는 지방관 주도로 목판 간행을 시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서울 인근에서 활자 인쇄를 추구한 사례이다. 이 족보의 간행을 위해 大諫 尹世綏가 海西를 按節하면서 재물과 장인을 모으려고 했으나 불행히도 시작하기도 전에 遞歸하였고 얼마 뒤에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諸宗이 일이 완성되지 못함을 심히 염려하여 北漢의 重興寺에서 鑄字를 써서 인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초기 족보의 간행에는 지방관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컸고, 관권에 크게 기대지 않는 사족의 집단적 협력도 나타나고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충분히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족보 출현 단계에서 나타난 이러한 특성은 한국 족보가 지극히 양반 관료 지향적인 특성을 갖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족보는 명목상 수록될 수 있는 인원의 신분적 제한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았지만, 科宦이나 學行 등 양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생애기록만을 기재하고 있었고 鄉吏나 庶孽 등이 간혹 非士族으로서 수록되기도 했지만 차별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었다.³⁴⁾

특히 인쇄본으로 만들어져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온 선구적인 족보들이 지방관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었던 상층 관료 가문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은 족보 간행에 있어서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특성은

34) 권기석, 2010, 앞의 논문.

최초의 간행본 『성화보』 서문의 표현처럼 ‘관복을 입고 조정에 포열해 있는’ 관료들이 대거 수록된 족보라는 정체성을 초기부터 강화했을 것이고 후대의 족보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족보라는 기록형태가 성립하고 초기편찬자들의 다양한 편집 시도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던 만큼, 족보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었다.

먼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문서와 같은 성격을 갖는 족보이다. 16세기 초 陽川許氏 족보의 서문을 쓴 金安國(1478~1543)은 족보를 국가적 관리체계 하에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의 관제 중에서 忠翊府 같은 곳은 원종공신을 위한 관서로서 世系와 譜牒만을 편수하므로 직무가 가장 한가하다면서, 만약 사대부 보첩에 관한 일도 兼掌하게 한다면 넉넉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³⁵⁾ 실제로 중국 唐代 이전에는 족보가 국가적 관리 대상이었던 시기가 있었고,³⁶⁾ 琉球王國에서는 系圖座라는 관청에서 官印을 찍어 관리하는 공문서의 성격을 갖는 서적이었다.³⁷⁾

한국사에서 양반 족보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공적 계보는 바로 왕실족보였다. 족보 출현이 시작되던 15세기에 왕실족보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족보가 있었다. 『驪興閔氏章順王后恭惠王后外家閔氏族譜』(1478)는 외척 가문의 족보를 왕명으로 편찬하도록 하고, 예조와 敦寧府 등 국가기관에 보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장순왕후와 공혜왕후의 外姓에 대해 八寸親에 한하여 수록하도록 한 것도 성씨별 족보보다는 왕실족보에 가까운 특성이다. 『과평윤씨을유보』(1585)도 편찬자 相國

35) 『慕齋集』 권11, 序, 「陽川許氏先世系譜序」.

36) 중국 唐代까지의 ‘古譜’는 정부의 관료선발과 세족의 통혼의 근거로 작용하였고, 이는 송대 이후 사대부의 자기정체성 확립과 유교적 윤리 규범을 강조하며 宗族 결속을 추구하는 ‘近世譜’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한다. 陸貞任, 2006, 「宋代代 族譜 修撰과 그 社會史의 意義」, 『韓國史學報』 22, 고려사학회.

37) 손병규, 2016, 「琉球王國과 朝鮮王朝 族譜의 비교연구」, 『大東文化研究』 94, 45쪽.

尹漑가 舊本 족보에 忠勳·敦寧 兩府의 小錄을 모두 鉸梓하여 인쇄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지역 단위의 공동체 또는 연고 의식을 반영하는 족보이다. 초보적 가계기록 중에는 특정한 가문이나 문중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편찬과 관리를 통해 제작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³⁸⁾ 예컨대 강릉의 府司에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는 『江陵金氏王族圖』(1476)가 그러한 사례이다.³⁹⁾ 또한 『咸陽郡三姓族譜』(1481)도 실물이 전하지 않지만 군현별 유력 성씨의 족보로 추정되는데 지역공동체 차원의 성씨라는 특색이 있으며, 『世宗實錄地理志』에 군현별 土姓 목록이 기재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河受一이 작성한 晉陽河氏 족보(1605) 서문에는 晉陽의 三大姓인 姜氏, 鄭氏, 河氏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군현 단위의 족보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군현 단위의 명족 의식은 꾸준히 온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한 국가관리 또는 지역단위 족보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시도는 한국 족보의 주류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진술한 바와 같이 초기 족보는 관료층이 官權을 빌려 私的 간행물을 펴내는 방식으로 출간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현실의 족보가 관료지향적인 특성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족보는 신분 증빙이나 과시 목적 이외에도 유교적 친족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의의도 있었던 만큼, 원론적으로 혈연이 닿는 자들에게 열려 있어야만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의 족보 편찬자들은 중국 족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고, 중국 족보의 신분적 개방성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38) 권기석은 성관 시조 중의 상당수는 족보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려 이전에는 지역(군현) 단위의 추앙과 제향을 받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권기석, 2013, 「姓貫 始祖의 지방 토착적 기원과 기념활동의 양상」, 『朝鮮時代史學報』 65, 조선시대사학회.

39) 차장섭, 1997, 앞의 논문.

다. 예컨대 『羅州朴氏族譜』(1642) 서문에는 宋代 족보 중에 歐陽氏와 蘇氏 족보가 있고, 明代에는 李氏와 喬氏 족보가 있었다는 언급이 있어서 중국의 대표적 족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陝川李氏 족보(1529) 서문에서는 중국에서는 사대부 뿐 아니라 工商에게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언급이 있다. 『豐川盧氏族譜』(1536)에서도 중국은 비록 장사꾼이나 천민에게도 계보가 있는데, 사대부의 후손으로 그 所自出을 알지 못해서 되겠느냐고 하였다.

17세기 이후로는 광범위한 혈연자의 포섭을 지향하는 수보 양상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초기 족보의 편찬과 간행은 관료층을 다수 배출한 가계가 주류가 되면서도, 상대적으로 한미하여 계보 고증이 어려운 가계까지 포섭하고자 한 것이다. 『海州吳氏族譜』(1634)에서는 본관지 해주에는 두 파로 나누어진 오씨가 있었는데, 같은 시조인지 의심스러운데도 海西望族이라고 하여 족보의 말미에 별도로 실어주었다고 한다. 이는 정식으로 족보에 등재하기 애매한 가계를 별도로 수록하는 족보의 한 부분인 ‘別譜’가 출현한 매우 이른 시기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泰仁許氏 족보(1682)에서도 世系가 先祖까지 닿지 않는 자는 譜末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는데, 宗姓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晉山姜氏南漢譜』(1685)에서도 嶺南宗人의 家譜에 오류가 많지만 감히 버리지 못하여 시조의 뒤에 別錄하여 傳疑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별보에 실린 이들은 아직까지 족보 편간의 ‘주변인’들이었고, 가문 내에서 지방관이 배출되거나 同宗 조직의 집단적 협력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춘 계층이 매우 제한적이었기에 족보 편찬을 주도하는 주류 가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맺음말

본고에서 한국 족보의 태동기이자 확산기인 15세기 조선 개국초부터 18세기초 숙종대까지 편찬되었던 족보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修譜 활동과 간행 방식의 추세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부표]로 정리한 조사결과에서 15~18세기초의 현존 판본과 현존이 확인되지 않지만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판본의 목록을 고문헌 소장 기관 목록, 기존 족보의 舊譜序, 관련 연구 논저를 근거로 파악하였다. 현존 판본 중에는 시기적으로 앞서고 조선시기 보첩 문화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존 미확인 족보 중에서도 구체적인 간행 경위와 편집 및 인쇄 방식이 전하는 족보들이 적지 않아서 향후 연구자들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한편 초보적 가계기록에서 성관별 족보로 발전되어 가는 여러 단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시기적 변화 추세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족보 편찬의 시기적 추이를 전체적으로 집계해 본 결과, 후대로 갈수록 수보의 빈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동권씨성화보』가 간행된 15세기 후반, 『문화유씨가정보』가 간행된 16세기 중·후반 무렵에 두 차례에 걸친 족보 편찬의 유행이 있었고, 16세기말 임진왜란으로 인한 계보기록 소실을 복구하는 의미가 있는 17세기 전반의 재유행 이후로는 족보 발간의 꾸준한 증가세가 조선후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보 추세의 증감에는 선구적인 족보의 파급 효과, 임진왜란으로 인한 족보의 소실, 전문적인 족보 편집자의 활동 등의 요인이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족보의 간행 방식을 목판과 활자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장기 보존성이

높은 목판본이 필사본에 비해서 현저히 많았고, 본고에서 조사한 17세기 초까지 족보의 유행은 곧 목판본 족보의 유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활자본 족보는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는데 목판본에 비해서 그 비중은 적은 편이며 대부분 목활자본이다. 현존 족보의 책수는 수보 회차가 더해질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필사본보다 간행본의 책수가 현저히 많아서 거질의 족보는 대개 간행본으로 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 미확인 족보들 중에도 상당수 간행본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필사본 상태로 수보가 종결되었다가 후속 족보에서 간행을 성사시킨 예도 다수 보인다.

지방관 주도의 간행 방식이 일반적이다 보니 목판본 족보의 간행 지역은 간행을 주도한 지방관의 부임지인 전국 군현에 산재되어 있었고, 경우에 따라 완성된 목판을 해당 성관의 연고지로 이송하기도 하였다. 활자본은 간행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서울과 그 인근에서 간행된 사례들의 경우 지방관의 역할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방관 주도의 간행 사례들을 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관찰사가 간행을 주도했으나 감영에서 작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관아가 아닌 관내의 사찰에서 간행한 경우도 있어서 당시 인쇄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혈연관계에 있는 여러 지방관들이 협력하여 간행을 주도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는데, 16세기 이전에는 내외손 지방관이, 17세기 이후로는 동성 지방관이 연계망을 형성하여 협력한 경우가 많았다. 지방관 주도의 간행은 초기 족보의 간행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부임지의 흉년이나 재정 부족, 예기치 못한 遞職 등으로 인하여 원만한 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고, 장기간 간행이 지연되거나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관 주도의 간행이 갖는 한계에 대한 대응은 同宗 구성원의 조직적

인 협력이었다. 이들은 임무에 따라 有司를 선임하고 宗契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충당하여 간행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적 수보는 지방관 주도의 간행 방식과 결합하기도 하였고, 아예 지방관 관여 없이 지방 사족사회나 문중의 역량만으로 간행되기도 했는데, 『진성이씨족보』(1600)처럼 서원에서 간행되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인력과 물자를 모아 간행하였다.

초기 족보의 간행이 지방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권의 영향력 하에 간행되기 시작한 점은 자연스럽게 양반관료 지향적인 족보의 성격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5~16세기 족보 태동기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도된 초보적 가계기록 이외에도 조선 족보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있는 족보들이 제안되거나 시도된 바 있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문서적 성격의 족보와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왕실 외척 가문의 족보가 있었고, 지역 공동체의 문벌 의식을 반영하는 족보가 있었으나, 이후 조선 족보의 주류가 되지는 못했다.

한편 조선의 족보 편찬자들은 工商人도 수용하는 중국 족보의 신분적 개방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17세기 이후 가계가 寒微하여 계보가 불분명한 이들을 ‘別譜’ 형태로 실어주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현실적으로 족보 편찬을 주도하지 못하고 주변적 존재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족보 간행이 현실적으로 족보 간행이 가능한 계층이 지방관으로서 관권의 동원이 가능하거나, 사족 결집을 통해 인력과 재력을 충분히 모을 만한 사회적 조건을 갖춘 사족 상층에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족보의 신분계층적 성격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명은 조선 전시기에 걸친 수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가능하며, 중국, 琉球, 越南 등 유교적 족보문화를 공유하는 다른 지역의 족보 문화와 비교사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1. 사료

참고한 개별 족보는 [부표] 참조

2. 논저

1) 단행본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2013, 『한국족보의 특성과 동아시아에서의 위상』, 계명대학교출판부
- 국립민속박물관 편, 2012,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유물보존총서 VI)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편, 2017, 『족보, 나의 뿌리를 찾아가다』, 국립중앙도서관
- 권기석, 2011, 『족보와 조선사회: 15~17세기 계보의식의 변화와 사회관계망』, 태학사
- 박홍갑, 2010, 『고성이씨 가문의 인물과 활동』, 일지사
- 수원화성박물관 편, 2023, 『수원유수부 승격 23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평강 채씨 가문의 문장가들』
- 이수진,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북대학교 박물관 편, 2018, 『전라감영 책판의 문화사적 가치와 가능성』, 전북대학교 박물관
- 鄭炳浣 編著, 1987, 『韓國族譜舊譜序集』, 亞細亞文化社
-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2013, 『유교책판, 나무에 繡를 놓다』
-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기획, 2014,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 한국족보박물관 편, 2010, 『선물: 한국족보박물관 준공기념, 기증·위탁유물 특별전』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編, 2006, 『韓國의 族譜: 왕실 보첩과 사대부 족보』

2) 논문

- Edward W. Wagner, 1989, 「1476年 安東權氏族譜와 1565年 文化柳氏族譜- 그 성격과 意味에 대한 考察-」, 『石堂論叢』 제15집,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研究院
- 강나은, 2021, 「조선 후기 족보의 여성 정보 등재 추이와 그 의미 - 安東權氏族譜(1476~1907)를 중심으로 -」, 『韓國史論』 67,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 고성배, 2023,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淸州韓氏世譜」의 간행체제와 특징 연구」, 『書誌學研究』 94, 韓國書誌學會
- 고혜령, 2010, 「『星州李氏 萬曆譜』의 제작과 의의」, 『한국계보연구』 1, 한국계보연구회
- 宮嶋博史, 2008, 「『안동권씨성화보』를 통해서 본 한국 족보의 구조적 특성」, 『大東文化研究』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권기석, 2010, 「조선시대 族譜의 入錄階層 확대와 한계 -凡例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55, 조선시대사학회
- 권기석, 2013, 「姓貫 始祖의 지방 토착적 기원과 기념활동의 양상」, 『朝鮮時代史學報』 65, 조선시대사학회
- 權奇奭, 2017, 「潘南朴氏의 修譜 이력과 편집 방식」, 『韓國系譜研究』 7, 韓國系譜研究會
- 權奇奭, 2019, 「16~17세기 宜寧南氏의 外孫奉祀와 立後의 추이 - 『判尹南公 先系』와 『宜寧南氏族譜』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135, 한국사학회
- 權奇奭, 2019, 「조선시대 족보의 女性 등재 방식 변화 -여성의 夫家 귀속과 다원적 계보의식의 축소-」, 『朝鮮時代史學報』 90, 朝鮮時代史學會
- 권기석, 2022, 「조선후기 木板本 족보 간행의 추이와 의미 -奎章閣 소장

- 족보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103, 朝鮮時代史學會
- 권기석, 2022, 「조선후기 족보에서 목활자(木活字) 사용의 확대 -규장각(奎章閣) 소장 족보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98, 韓國史研究會
- 권기석, 2023, 「조선후기 보청(譜廳)의 설치와 기능 -평강채씨(平康蔡氏)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203, 韓國史研究會
- 권기중, 2014, 「달성 서씨를 통해 본 조선후기 신분변화의 장기 추세와 그 의미 -『달성서씨족보』와 『대구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權寧大, 1981, 「成化譜攷」, 『學術院論文集』 20, 대한민국학술원
- 권지은, 2020, 「족보를 통해 본 종족·가문·마을의 사회문화사 -義城金氏 鶴峯 金誠一家를 중심으로 -」, 『韓國系譜研究』 10, 韓國系譜研究會
- 김난옥, 2008, 「여말선초 先祖意識과 족보편찬의 신분적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25, 한국중세사학회
- 김난옥, 2013, 「안동김씨 김방경가문의 족보 간행과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37, 한국중세사학회
- 김명숙, 2009, 「<<驪興閔氏家乘記略>>을 통해 본 17-18세기 여흥 민문의 형성과 가문 정비」, 『韓國思想과 文化』 46, 韓國思想文化學會
- 김문택, 2013, 「한국적 종중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과정 -진성이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보연구』 4, 한국계보연구회
- 김성오, 2018, 「17세기 초 편찬 『晉陽河氏世譜』에서 보는 합천지역 양반들의 네트워크」, 『사림』 64, 수선사학회
- 김현영, 2017, 「조선후기 先代 과약 방식의 족보 반영 양상 - 해주 오씨 族圖를 중심으로」, 『韓國系譜研究』 7, 韓國系譜研究會
- 김현영, 2023, 「조선후기 반남박씨의 선조현양사업과 족적 결속」, 『古文書研究』 62, 한국고문서학회
- 陸貞任, 2006, 「宋元代 族譜修撰과 그 社會史的 意義」, 『韓國史學報』 22, 고려사학회

- 李紀勳, 2011, 「송대 족보문화와 蘇洵의 <蘇氏族譜>」, 『중국문학연구』 45, 한국중문학회
- 박훈평, 2013, 「족보를 통한 조선 중기(1506~1637) 三醫司 의관 가계배경 연구 - 『선원록』을 중심으로 -」, 『韓國醫史學會誌』 26-2, 韓國醫史學會
- 백광열, 2019, 「『문화유씨가정보』(1565)를 통해 보는 여말·조선전기 엘리트」, 『한국계보연구』 9, 한국계보연구회
- 백광열, 2021, 「『文化柳氏嘉靖譜』(1565) 등장 관료의 친족연결망을 통해 보는 조선 전기 사림파의 사회적 배경: 기묘사림을 중심으로」, 『奎章閣』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손병규, 2010, 「13~16세기 호적과 족보의 계보형태와 그 특성」, 『大東文化研究』 7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 손병규, 2012, 「조선왕조 1600년경 편찬 족보의 계보형태와 특성 -1606년 편찬 『晉陽河氏世譜(萬曆本)』의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 손병규, 2016, 「琉球王國과 朝鮮王朝 族譜의 비교연구」, 『大東文化研究』 94
- 심승구, 2000, 「朝鮮初期 族譜의 刊行形態에 관한 研究」, 『國史館論叢』 89, 國史編纂委員會
- 오영선, 2001, 「조선초기 家系記錄에 대한 일고찰」, 『典農史論』 7 (松籃李存熙教授停年紀念號), 서울시立大學校 國史學科
- 옥영정, 2010,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族譜, 童蒙書, 地誌, 日記類 등 책판의 성격과 가치」,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 옥영정, 2011, 「조선후기 족보의 인쇄문화사적 접근」, 『한국학논집』 44
- 이남옥, 2020, 「해주오씨 추탄가문의 가문 활동과 위상」, 『韓國系譜研究』 10, 韓國系譜研究會
- 이남희, 2011, 「조선 사회의 유교화와 여성의 위상 -15·16세기 족보를 중심으로

- 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8,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이성무, 2010, 「한국의 姓氏와 族譜」, 『한국계보연구』 1, 한국계보연구회
- 이정란, 2008, 「족보의 자녀 수록방식을 통해서 본 여말선초 족보의 편찬 배경 - 『安東權氏成化譜』, 『文化柳氏嘉靖譜』를 중심으로 -」, 『한국중세사연구』 25, 한국중세사학회
- 이형운, 2013, 「昌寧成氏族譜의 山圖製作과 地理認識에 관한 研究」, 『韓國古地圖研究』 5-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 장인진, 2007, 「朝鮮時代 族譜의 文獻學的 검토」, 『東洋禮學』, 동양예학회
- 장인진, 2011,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족보의 현황과 善本」, 『한국학논집』 4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정수환, 2012, 「진양하씨 초간보(1608)를 통해 본 17세기 족보편찬의 유형 검토」, 『한국계보연구』 3, 한국계보연구회
- 鄭在勳, 1989, 「海州吳氏族圖考」 『東亞研究』 1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정호훈, 2018, 「17세기 潘南朴氏 족보의 편찬과 그 動學 - 錦溪君 朴東亮 후손의 활동을 중심으로 -」, 『韓國系譜研究』 8, 韓國系譜研究會
- 車長燮, 1997, 「朝鮮時代 族譜의 編纂과 意義 -江陵金氏 族譜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 朝鮮時代史學會
- 車長燮, 2006, 「綾城具氏 族譜의 刊行과 그 特徵」, 『韓國史學報』 22, 高麗史學會
- 차장섭, 2010, 「조선시대 족보의 유형과 특징」, 『역사교육논집』 44, 역사교육학회
- 崔陽奎, 2008, 「18세기 이후 朝鮮에서 派譜의 등장과 族譜의 확산」, 『白山學報』 80, 白山學會
- 崔在錫, 1979,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 『歷史學報』 81, 역사학회
- 黃雲龍, 1985, 「韓國族譜研究序說」, 『石堂論叢』 10,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研究院

Abstract

Current Status and Publication Trends of Early and Mid-Joseon Genealogy

Kwon Ki-seok

This paper basically reviewed the case of the publication of ‘early genealogy’ from the 15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the period of King Sukjong’s reign), when genealogy appeared and spread widely, and attempt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trend of printing methods. Based on the following sources, this paper prepared a comprehensive list of early genealogies: First, the genealogy list existing in various institutions that own ancient books in the Joseon Dynasty; second, the previous genealogy indirectly identified in the preface of the existing genealogy; and third, the genealogy mentioned in the existing research papers. The list includes valuable books that are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Joseon's genealogy culture, as well as several genealogies that convey specific editing and printing methods or show the process of developing from elementary genealogy records into publications representing the entire family name.

According to the chronological trend of genealogy compilation, the frequency of compilation is steadily increasing in the later period, and the trend of genealogy compilation began with the emergence of pioneering genealogy such as “Seonghwa Genealogy of Andong Kwon

Lineage(安東權氏成化譜)” and “Gajeong Genealogy of Munhwa Yu Lineage(文化柳氏嘉靖譜)”. In addition, despite the loss of genealogy due to the Imjin War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it can be seen that the number of publication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As local officials often carry out publication work at the place of appointment, printing workshops became widely distributed in counties and prefectures throughout the country. In some cases, work was carried out in temples within the place of appointment. When work was done at the county government office, various local officials in blood ties formed a network to cooperate, and before the 16th century, blood relatives with different family names participated, but after the 17th century, only blood relatives of the same family name participated. However, there were cases where various families were not able to produce local officials frequently, and due to the difficult circumstances of the place of appointment, publication was delayed for a long time or only attempted. As an effort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possible to identify cases in which an executive in charge of editing is appointed within the family, and expenses are covered using the organizational power of the family meeting, or published by the capacity of the aristocratic society. Due to these various conditions in the genealogy compilation process, it is thought that the genealogy of Joseon naturally became oriented toward the values of the ruling status.

Keywords : genealogy, publication, printing woodblock, movable type, transcription, draft of a genealogy, genealogy editor

[부표] 초기 족보(1401~1719) 목록

*‘구보서집’으로 약칭: 鄭炳沆 編著, 『韓國族譜舊譜序集』, 亞細亞文化社, 1987

*제목의 굵은글씨는 현존확인 족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海州吳氏族圖	1401년 (태종 1)	필사본		*현존 확인: 부산 거주 吳璟煥 소장 (정재훈, 1989 참조) *吳先敬, 「族圖跋」(1401) 참조	권기석, 2011; 오영선, 2001; 정재훈, 1989; 심승구, 2000; 김현영, 2017; 장인진, 2007; 이수건, 2003	초보적 가계기록 (族圖)
水原白氏	1405년 (태종 5)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현대 족보에 ‘永樂譜 서문’ 수록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장인진, 2007	
文化柳氏 (永樂譜)	1423년 (세종 5)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에 柳穎 서문(1423) 수록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최재석, 1983	
原州邊氏 (乙卯譜)	1435년 (세종 17)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에서 언급	심승구, 2000	

사학연구 제156호(2024. 12)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南陽洪氏 (正統譜)	1441년 (세종 23)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에서 언급	심승구, 2000	
濟州高氏 (庚午譜)	1450년 (세종 23)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에서 언급	심승구, 2000	
晉陽河氏 [晉州河氏] (辛未譜)	1451년 (문종 1)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에 河濱 서문(1451) 수록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南陽洪氏 (景泰甲戌譜, 唐洪)	1454년 (단종 2)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南陽洪氏世譜』(奎4197) 및 현대 족보에 洪逸童 서문(1454) 수록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최재석, 1979; 황운룡, 1985	『南陽洪氏派系之圖』라는 초보적 가계기록이 舊譜로서 존재
安東權氏族圖	1454년 (단종 2) ~1456년 (세조 2)	필사본		*현존 확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99년 구입하고, 2011~2012년에 걸쳐 보존처리함. 權呂溫을 기점으로 현존 단종을 포함한 내외후손을 기록한 族圖이며 『安東權氏成化譜』와는 연관성이 적음	국립민속박물관, 2012	
星州李氏 (甲申譜)	1464년 (세조 10)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에 李尹孫 서문 수록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忠州朴氏 (甲午譜)	1474년 (성종 5)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에서 언급	심승구, 2000	
江陵金氏王族圖	1476년 (성종 7)	필사본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에서 언급	심승구, 2000; 차장섭, 1997	초보적 가계기록 (族圖)으로 추정됨
安東權氏族譜 (成化譜)	1476년 (성종 7)	목판본, 3권 3책	安東府	*현존 확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929.1-Se61a *徐居正 서문, 崔鎭 발문 참조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이남희, 2011; 강나은, 2021; 차장섭, 2010; 장인진, 2007; 최재석, 1979, 황운룡, 1985; 이수건, 2003	舊譜로서 초보적 가계기록(家牒) 존 재 최초의 현존하는 간행본 족보
全義李氏 (成化草譜)	1476년 (성종 7)	필사본 추정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全義李氏族譜 (奎53), 현대 족보에 李麟 서문(1476) 수록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최재석, 1979	서문 필자 李麟의 祖父 李質가 편찬한 全城李氏, 月城金 氏, 東州崔氏, 陽川 許氏 4姓의 내외족 보가 있었음. 개인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중심의 초보적 가계 기록으로 생각됨
鐵城李氏族譜之圖 (固城李氏)	1476년 (성종 7)	목판본, 1책		*현존 확인: 『鐵城聯芳集』(奎7354), 『鐵城李氏族譜之圖』 *『鐵城聯芳集序』(『靑坡集』 권2) 참조	심승구, 2000; 장인진, 2007; 권기석, 2011; 박홍갑, 2010	固城李氏 『鐵城聯芳集』에 수록된 초보적 가계기록(內外八寸 子孫錄)
驪興閔氏 (章順王后恭惠王后外家閔氏族譜)	1478년 (성종 9)	필사본 추정		*현존 미확인: 역대 족보 파악.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에 閔奎 서문(1478), 閔泮(1487) 수록 *閔鎭厚, 『驪興閔氏族譜序例』(1713)의 역대 족보에 대한 서술 참조	심승구, 2000; 최재석, 1979;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황운룡, 1985	왕실족보에 가까운 성격의 족보로서 예조와 돈녕부에 소장함
彝尊錄 (善山金氏)	1480년 (성종 11)	목판본(문집의 일부)		*현존 확인: 『佔畢齋集』에 수록됨 *金宗直 서문 참조	권기석, 2011	김종직의 직계 조상과 가까운 방친을 수록한 초보적 가계기록(家牒)
咸陽郡三姓族譜	1481년 (성종 12)			*현존 미확인: 俞好仁, 『咸陽郡三姓族譜序』(『潘谿集』 권7) 참조	권기석, 2011	군현별 유력 가문을 망라한 초보적 가계기록으로 추정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南原梁氏族譜	1482년 (성종 13)			*현존 미확인: 李淑斌, 「南原梁氏族譜序」(『訥齋集』 권6) 참조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심승구, 2000에서 '濟州(南原)梁氏族譜'라 지칭하였고, 李淑斌의 서문에서 南原土姓 8개를 거론함
陽城李氏	1486년 (성종 17)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에 李承召 서문(1486) 수록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昌寧成氏族譜 (癸丑譜)	1493년 (성종 24)			*현존 미확인: 「昌寧成氏族譜序」(『虛白堂文集』 권6) 및 『昌寧成氏族譜』(奎9798), 『昌寧成氏思肅公派譜』(奎3151) 등에 수록된 成覲 서문(1493), 成重性 발문 참조	권기석, 2011; 이형윤, 2013; 심승구, 2000; 최재석, 1979; 황운룡, 1985	후대 족보에서 『成原古譜』로 지칭
河陰奉氏 (癸丑譜)	1493년 (성종 24)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原州邊氏 (丁丑譜)	1517년 (중종 12)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사학연구 제156호(2024. 12)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和順崔氏 (丁丑譜)	1517년 (중종 12)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에 崔世演 서문(1517), 曹伸(1522), 李恒敬 서문(1529) 수록	권기석, 2011	‘丁丑舊譜’라고 불리지만 실제 정축년(1517) 이후 여러 해가 지난 1522년과 1529년에도 서문이 작성됨
漢陽趙氏 (甲申單卷譜)	1524년 (중종 19)	목판본 추정	咸昌 추정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에 趙元紀 서문(1524), 趙世楨 발문(1522) 수록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최재석, 1979	편찬자 趙元紀의 부친 조충손이 작성한 초보적 가계 기록(家乘, 小牒)이 있었음
陝川李氏	1529년 (중종 24)			*현존 미확인: 『陝川李氏世譜』(奎8601) 및 현대 족보에 李福老 서문(1529) 수록	권기석, 2011; 최재석, 1979	
和順崔氏 (癸巳譜)	1533년 (중종 28)	목판본 추정	比安 추정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에 崔善卿 서문(1533) 수록	권기석, 2011	
濟州高氏 (乙未譜)	1535년 (중종 30)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豐川盧氏族譜 (嘉靖丙申譜)	1536년 (중종 31)	필사본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盧禎 서문(1536) 및 「書盧氏族譜後」(『玉溪先生文集』 권5) 참조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坡平尹氏 (己亥譜)	1539년 (중종 34)	간행본 추정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에 蘇世讓 서문(1539) 수록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鎭川宋氏 (辛丑譜)	1541년 (중종 36)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에 宋贊 서문(1541) 수록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편찬자 宋贊의 부친이 편찬한 ‘外派支派譜’가 있었음
泰仁許氏	1543년 (중종 38)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수록 金安國 서문 참고	권기석, 2011	
柳義興內外八姓 族譜 (文化柳氏)	1544년 (중종 39)	목판본 추정	龜城	*현존 미확인: 周世鵬, 『武陵雜稿』卷8 原集, 「柳義興內外八姓族譜跋」(1544) 참조	권기석, 2011	*개인 중심의 초보적 가계기록(八高祖圖 擴張型)
星州李氏隴西 郡公族譜	1545년 (인종 1)	필사본, 1책		*현존 확인: 星州李氏大宗會 所藏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22쪽에서 소개) *李文樾 친필 曆書記 있음		
靑松沈氏 (乙巳譜)	1545년 (인종 1)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최재석, 1979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順興安氏 (丙午譜)	1546년 (명종 1)	목판본	安東 추정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順興安氏族譜』(奎12636), 현대 족보 수록 安璋 발문(1546), 安球 발문(1546), 安承宗 발문(1546) 참조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차장섭, 2010; 최재석, 1979	
原州邊氏 (辛亥譜)	1551년 (명종 6)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昌原丁氏族譜	1551년 (명종 6)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昌原丁氏族譜序(『游軒先生集』 권 3), 현대 족보 수록 丁燾(1551) 서문	권기석, 2011	
永川李氏 (聯派錄)	1552년 (명종 7)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 李世憲(1552) 서문 참조	권기석, 2011	
延日鄭氏 (迎日鄭氏, 嘉靖癸丑譜)	1553년 (명종 8)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義城金氏世譜 (癸丑譜)	1553년 (명종 8)	필사본, 1책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929.1-의성김) *序: 嘉靖癸丑(1553), 黃俊良	장인진, 2011; 심승구, 2000; 최재석, 1979	
沃川全氏世譜	1554년 (명종 9)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에 全彭齡(1554) 서문 수록	권기석, 2011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樂安金氏 (甲辰譜)	1556년 (명종 11)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錦城羅氏 (羅州羅氏, 嘉靖譜)	1562년 (명종 17)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靑松沈氏 (壬戌譜)	1562년 (명종 17)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樂安金氏 (甲子譜)	1564년 (명종 19)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江陵金氏 乙丑譜	1565년 (명종 20)	목판본, 1책 99장		*현존 확인: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서 확인됨(차장섭, 1997), 강릉김씨 강릉종친회 소장(이수건, 2003)	이수건, 2003; 이남희, 2011, 심승구, 2000, 차장섭, 2010, 최재석, 1979	
文化柳氏世譜 (嘉靖譜)	1565년 (명종 20)	목판본, 11책	聞韶	*현존 확인: 안동시 도산면 거주 진성이씨 李在寧 소장, 1979년 복간하여 보급(이남희, 2011) *跋: 嘉靖四十一年十二月下流滴人(柳)希潛書于聞韶寓舍 *序: 永樂二十年(1422)八月日...(柳)穎謹誌	권기석, 2011; 이남희, 2011; 차장섭, 2010; 장인진, 2007;	

사학연구 제156호(2024. 12)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表題: 文化柳氏嘉靖譜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에 柳希潛(1562) 및 柳灑(1565) 발문 수록	심승구, 2001; 이수건, 2003	
長水黃氏 (嘉靖譜)	1565년 (명종 20)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興城張氏 (丙寅草譜)	1566년 (명종 21)	필사본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興城張氏世譜』(규장각, 古 929.1-J257h), 현대 족보에 張倪(1566) 서문 수록	권기석, 2011	
全州崔氏 (隆慶譜)	1567년 (명종 22)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靑山鄭氏 (乙巳譜)	1569년 (선조 2)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淸州楊氏 (庚午譜)	1570년 (선조 3)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全義李氏姓譜 (萬曆甲午譜)	1574년 (선조 7)	목판본	全義, 碑巖寺에 목판 보관	*현존 미확인: 全義李氏姓譜序(『藥圃集』 권6), 全義李氏族譜(奎53), 현대 족보 수록 李海壽 서문(1574), 安躡 발문(1575) 참조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延日鄭氏 (迎日鄭氏, 乙亥譜)	1575년 (선조 8)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최재석, 1979	
南陽洪氏族譜 (土洪, 丙子譜)	1576년 (선조 9)	목판본		*현존 미확인: 「洪氏族譜序」(『忍齋先生文集』 권4) 및 현대 족보 수록 洪暹 서문(1576) 참고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편찬자 洪暹의 족 질 현령 林挺立의 외증조 승지 洪湜 이 手書한 小帖이 있었음
綾城具氏姓譜 (乙亥譜)	1576년 (선조 9)	목판본, 1책 66장	淸州 菩薩寺	*현존 확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41 *邊循 발문(「乙亥譜後識」, 1576) 참조 *1575년(선조 8) 청주 보살사에서 1책 목판본으로 간행했 고, 묘지명, 姓譜(상, 중, 하), 別譜, 발문 등으로 구성됨(이남 희, 2011)	권기석, 2011; 차장섭 2006; 심승구, 2000; 이남희, 2011; 최재석, 1979; 차장섭, 2011; 이수진, 2003	
陰城朴氏 (丁丑譜)	1577년 (선조 10)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高靈申氏 (漁城譜)	1578년 (선조 11)	목판본, 4권 2책 추정	稷山縣 龜巖寺	*현존 확인: 2011년 고령신씨 문중 영인본 있음, 『漁城譜』 (고령신씨 북백공파 가장집 6), 송헌문화재단, 2011	심승구, 2000	

사학연구 제156호(2024. 12)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漁城譜』로 지칭(심승구, 2000)되며, 간행자 충청도 관찰사 申湛의 號가 漁城임 *서문: 萬曆六年三月日十三代孫忠淸道觀察使申湛誌 *발문: 萬曆六年戊寅三月日十二代孫申克淸謹識		
靑松沈氏 (戊寅譜)	1578년 (선조 11)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草溪周氏 (己卯譜)	1579년 (선조 12)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安東金氏庚辰譜 (舊安東)	1580년 (선조 13)	목판본, 1책		*현존 확인: 안동김씨대종회에서 소장 중(김난옥, 2013)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金億齡 서문(1580), 金齊賢 발문(1580) 참조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김난옥, 2013; 최재석, 1979	
咸從魚氏辛巳譜	1581년 (선조 14)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扶寧金氏 (扶安金氏)	1584년 (선조 17)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東萊鄭氏 (乙酉本)	1585년 (선조 18)	목판본 추정		*현존 미확인: 『東萊鄭氏派譜』(奎860) 및 현대 족보 수록 鄭惟吉 서문(1585) 참고	권기석, 2011; 최재석, 1979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坡平尹氏 (乙酉譜)	1585년 (선조 18)	목판본 추정	호서 감영 추정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 尹勉 서문(1585) 참고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최재석, 1979	
濟州梁氏 (南原, 忠州)	1587년 (선조 20)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최재석, 1979	
玄風郭氏 (苞山)	1587년 (선조 20)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星山李氏 (廣平, 星州)	1593년 (선조 26)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草溪周氏世系	1594년 (선조 27)			*현존 확인: 한국족보박물관 소장(주대립 기증). 『선물: 한국족보박물관 준공기념, 기증·위탁유물 특별전』, 한국족보박물관, 2010, 9쪽 참조		
四姓綱目 (固城李氏 또는 鐵城李氏)	1597년 (선조 30)	필사본, 1책		*현존 확인: 경남 의령군 정곡면 李根永씨 소장.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四姓綱目·春坡心易』(영인본), 경남문화자료총서 1, 2002, 8쪽 참조 *李魯, 「四姓綱目序」(『松巖先生文集』 권3)	권기석, 2011; 손병규, 2010; 이수건, 2003; 박홍갑, 2010	개인 중심적인 초 보적 가계기록(內 外四祖 擴張型)
恩津宋氏 (己亥譜)	1599년 (선조 32)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 수록 宋栲壽 서문(1599) 참조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서문 필자 宋栲壽가 鄭崑壽와 협력하여

사학연구 제156호(2024. 12)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八高祖의 계과를 정리한 八寸譜를 만든 적이 있음
晉州河氏 (晉陽, 己亥譜)	1599년 (선조 32)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심승구, 2000	
光山卓氏庚子譜	1600년 (선조 33)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에 鄭崑壽(1600), 卓世亨 서문 수록	권기석, 2011; 심승구, 2000	
丹陽禹氏 (庚子譜)	1600년 (선조 33)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 참조		
眞城李氏族譜 (庚子譜)	1600년 (선조 33)	목판본, 3권 2책	陶山書院 (禮安, 李詠道 編)	*현존 확인: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 성암 2-623;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기)929.1 - 진성이 *序: 萬曆庚子(1600)七月...忠淸道觀察使兼水軍節度使巡察使金功謹識 *『眞城李氏族譜序』(『栢巖先生文集』 권6) 및 현대 족보 수록 金功(1600), 吳滢 서문(1600) 포함	장인진, 2011; 심승구, 2000, 이남희, 2011; 김문택, 2013; 이수건, 2003	
鐵嶺草譜 (固城李氏)	1600년 전후	필사본		*현존 확인: 野老堂 李淳(1530~1606)의 종손으로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李柄奎씨 소장	박홍갑, 2010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興陽李氏家牒	1601년 (선조 34)	목판본, 1책	丹陽	*현존 확인: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B13-A122 *李堉(朝鮮) 編 *誌: 萬曆庚子(1600)六月朔日孫堉謹誌 *跋: 萬曆二十九年(1601)日南至晉陽鄭經世謹跋		소규모 家牒 형태의 초보적 가계기록으로 추정됨
南陽洪氏世譜 (唐洪)	1603년 (선조 36)			*현존 미확인: 「南陽洪氏世譜序」(『西厓先生文集』 권17)와 현대 족보 수록 洪璋(1603), 柳成龍(1604) 서문 참고	권기석, 2011, 장인진, 2011	
德山黃氏族譜	1604년 (선조 37)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수록 黃汝一 서문(1604) 참고	권기석, 2011	
安東權氏 (乙巳譜)	1605년 (선조 38)	필사본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 수록 權紀 서문 참조. 舊譜에 따라 동성과 이성을 모두 수록하였고, 16질을 필사함 *序: 萬曆乙巳 23代孫 參奉紀 謹識	권기석, 2011; 강나은, 2021	
延安李氏族譜	1605년 (선조 38)	필사본, 1책(27장)	충청도 지역으로 추정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貴2518-62-592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李光庭 서문(1605), 李弘老 발문(1605), 李萬元 서문 참조 *序: 皇明萬曆紀元之三十有三年乙巳(1605)...李光庭 *跋: 皇明萬曆三十三年乙巳(1605)...李弘老	권기석, 20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족보 중 가장 오래된 귀증본
晉州河氏	1605년 (선조 38)			*河受一, 「河氏族譜序」(『松亭先生文集』 권4) 참조	권기석, 2011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慶州裴氏 (興海, 曲江家世譜)	1606년 (선조 39)			*현존 미확인: 규장각 소장 『慶州裴氏大族譜』(奎12635) 수록 裴龍吉 서문(1606), 「曲江家世譜序」(『琴易堂先生文集』 권4) 참조	권기석, 2011	
陽城李氏	1606년 (선조 39)			*현존 미확인: 姜沆, 『睡隱集』 권3, 「陽城李氏族譜序」(1606) 참조	최재석, 1979	
晉陽河氏世譜	1606년 (선조 39)	목판본, 2권 2책	陝川 海印寺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하혼거,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802 v.1 *晉陽河氏 雲門宗宅 所藏.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23쪽 참조.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河渾 서문(1606), 柳仲龍 서문, 吳長 발문 등 참조 *刊記 : 萬曆丙午(1606)春夏 陝川 海印寺 開刊 *跋 : 萬曆丙午(1606)...李屹, 吳長 *跋 : 萬曆三十四年(1606)...河渾[後孫] *刊記 : 戊申(1608)秋 校正 *영인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편, 『진양하씨세보: 萬曆本』,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0	권기석, 2011; 장인진, 2011, 김성오, 2018; 이수건, 2003	
昌寧曹氏族譜	1606년 (선조 39)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서문 참조	권기석, 2011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廣州李氏同姓譜 (庚戌譜)	1610년 (광해군 2)	목판본, 1책	義城縣	*광주이씨 문중 소장(장서각, 2006, 25쪽) *영인본 소장: 충남대학교 도서관, 史系譜類-2146 *刊記: 皇明萬曆三十八年(1610)季秋日義城縣開刊 *表題: 新編廣州李氏同姓之譜 *『廣州李氏派譜』(규장각, G929.1-Y5g); 『漢陰先生文稿』 권12; 현대족보 등에 수록된 李德馨 서문(1613) 참조	권기석, 2011	이덕형 서문은 1613년 작성되었으나, ‘경술보’의 서문으로 지칭되며, 義城縣에서 간행했다는 사실도 서문 내용과 일치하여 1610년 간행본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됨 이덕형 서문에 활자로 간행된 구보 『廣陵世譜』에 대한 언급
礪山宋氏	1610년 (광해군 2)	목판본 추정	西原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수록 宋言愼 서문(1606), 宋駟 작성 「添記」(1610) 참조	권기석, 2011	
昌寧成氏族譜	1616년 (광해군 8)	목판본, 불분권 1책, 53장	觀龍寺(昌寧)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貴2518-36-27 *『昌寧成氏宗譜後鈔』(『滄浪先生文集』 권4), 『昌寧成氏族譜跋』(『滄浪先生文集』 권4) 및 『昌寧成氏族譜』(奎9798), 『昌	권기석, 2011; 이형윤, 2013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寧成氏忠肅公派譜』(奎3151, 3992, 484), 『昌寧成氏族譜』(奎9798), 현대 족보 수록 成文濬 서문(1615), 成晉善 서문(1616) 참조 *刊記: 萬曆丙辰(1616)五月 日 昌寧觀龍寺刊		
星州李氏族譜 (萬曆癸丑譜)	1617년 (광해군 9)	목판본, 1책	강원도 추정	*현존 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성주이씨 종친회로부터 수집 *李穡의 서문 수록	고혜령, 2010; 권기석, 2011	후손 李穡이 1617년 關東을 按察하러 나가 官廩을 아껴서 간행하였고, 판본을 安峯影堂에 두고 승려들에게 지키도록 함(고혜령, 2010)
完山崔氏別譜	1617년 (광해군 9)			*현존 미확인: 崔峴, 『完山崔氏別譜跋』(『詡齋先生文集』 권 11, 1617년 작성)	권기석, 2011	
淸州韓氏世譜	1617년 (광해군 9)	목판본, 不分卷 1책	淸州(西原) 菩薩寺	*현존 확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4657-20; 국립중앙도서관, 古貴2518-89-58;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 성암 2-629;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청주한씨;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823 v.1	권기석, 2011; 고성배, 2023; 장인진, 2011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淸州韓氏族譜』(규장각 古4650-74; 75) 수록 韓赫 발문(1617), 韓孝仲 발문(1617) 참조 *刊記: 皇明萬曆四十五年丁巳(1617)孟春西原菩薩寺開刊 *跋: 萬曆丁巳(1617)…韓孝仲. 萬曆丁巳(1617)…韓赫		
咸安趙氏族譜	1617년 (광해군 9)	간행본, 1책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趙任道(1617) 서문 참조	권기석, 2011; 이수건, 2003	
海州吳氏家鑑 雜錄	1620년 (광해군 12)	필사본, 5권 1책		*현존 확인: 고려대학교 도서관, 대학원B8-A118, 5권1책		소규모 가첩류 형태의 초보적 가계 기록으로 생각됨
德水張氏家乘	1621년 (광해군 13)			*현존 미확인: 張維, 「德水張氏家乘序」(『谿谷先生集』 권5, 1621년) 참조	권기석, 2011	
忠州池氏	1621년 (광해군 13)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수록 池德海 서문(1621) 참조	권기석, 2011	
驪興閔氏	1622년 (광해군 14)	목판본 추정	扶安 및 金堤	*현존 미확인: 閔仁伯, 「族譜跋」(『苔泉集』 권1, 1622년) 참조	권기석, 2011	
金寧金氏	1624년 (인조 2)	목판본 추정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족보에서 金廷弼 서문(1624) 참고	권기석, 2011	
固城李氏世譜	1633년	목활자본,		*현존 확인: 원광대학교 도서관, AN 999.11-○788고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鐵城)	(인조 11)	6책		*跋: 崇禎紀元後癸酉(1633)月日不肖後孫[李]夔謹跋 *序: 皇明萬曆二十五年丁酉(1597)仲夏之下浣後孫朝奉大夫司諫院正言前慶尙道都事兼春秋館注官松巖[李]魯謹序 *歲己酉(1609)四月日後孫奉列大夫行內資寺奉事[李]夔謹識 *歲己酉(1609)夏四月壬寅後孫[李]命圭謹識 *表題: 鐵城李氏族譜		
平海孫氏 (癸酉譜)	1633년 (인조 11)			*간행 미확인: 현대 족보 수록 李久證 서문(1633) 참조	권기석, 2011	
咸平李氏	1633년 (인조 11)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李濬 서문(1633) 참조	권기석, 2011	
全義李氏姓譜	1634년 (인조 12)	목판본, 상하 2책	榮川, 목관은 浮石寺에 보관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전의이 *『全義李氏姓譜』(奎53) 및 현대 족보 수록 李命俊 서문(1630), 申翊聖 발문(1631), 李厚基 발문(1634) 참조 *序: 崇禎庚午(1630)...李命俊[後裔孫] *跋: 崇禎七年甲戌(1634)...李厚基[後裔孫]	권기석, 2011	
坡平尹氏甲戌譜	1634년 (인조 12)	목판본 추정	전라감영 추정	*현존 미확인: 『과평윤씨정평공파보』(규장각 999.11 4-84) 수록 尹煌 발문 참조	권기석, 2011	
海州吳氏族譜 (甲戌譜)	1634년 (인조 12)			*현존 미확인: 吳翻, 「首陽吳氏族譜跋」(『天坡集』 권4) 참조	권기석, 2011; 이남옥, 2020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沃川全氏	1635년 (인조 13)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 수록 全命龍 서문(1635) 참조	권기석, 2011	
海州吳氏世系	1635년 (인조 13)	필사본, 1책, 4장		*현존 확인: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OL929.1-ㅎ174 *筆寫記: 崇禎紀元后乙亥(1635)孟秋(吳)學奎謹記		
首陽世譜 (海州崔氏)	1636년 (인조 14)	목판본, 3권 1책, 76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82-260;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999.81-족45入 *卷1: 高麗史名臣傳(崔氏家傳)		
平山申氏	1636년 (인조 14)			*현존 미확인: 「平山申氏姓譜後跋」(『化堂先生集』 권3), 「平山申氏姓譜序」(『樂全堂集』 권6) 및 현대 족보 수록 申翊聖 서문, 申敏一 발문(1636), 참조	권기석, 2011; 최제석, 1979	
淸風金氏族譜	1638년 (인조 16)	목판본, 1책 76장	一善府 추정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貴2518-10-768;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929.1-ㄱ819정 *「淸風金氏族譜序」(『潛谷先生遺稿』 권9), 「淸風金氏世譜」(奎171, 奎1825, 奎1819, 奎3774) 및 구보서집 수록 金埴 서문(1637), 金寅 발문(1638) 참조 *後敍: 崇禎十年丁丑(1637)...金埴 *後題: 崇禎十一年戊寅(1638)...金寅謹跋	권기석, 2011; 최제석, 1979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烏川鄭氏世系	1640년 (인조 18)頃	필사본, 1책, 20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7-428		*烏川鄭氏의 시조인 鄭襄明와 鄭安藩의 墓誌, 祭文, 挽詞 등을 모은 것으로 家乘 형태의 초보적 가계기록
羅州朴氏族譜 (潘南朴氏壬午譜)	1642년 (인조 20)	목판본,	榮川	*현존 확인: 반남박씨대종회 소장(정호훈, 2018) *현대 족보: 朴瀾 서문 *刊記: 壬午閏東 榮川開刊	권기석, 2011; 권기석, 2017; 최재석, 1979; 정호훈, 2018	
丹陽禹氏族譜	1642년 (인조 20)	목판본, 2권 2책	古阜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貴2518-55-8;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792 *印板留置: 公州山內齋宮 *跋: 崇禎十五年壬午(1642)...[禹]尙中	국립중앙도서관, 2017, 49쪽에 도판 수록	
順天張氏族譜	1643년 (인조 21)	목활자본, 1책 83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6-121 *跋: 崇禎紀元後癸未(1643)...[張]明天		
韓山李氏族譜	1643년 (인조 21)	목판본, 1책	강원감영 주정	*현존 확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李植 서문 참조	최재석, 1979; 한국학중앙연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발문: 癸未七月下澣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巡察使李德洙書于北原之營軒	구원 장서각, 2006, 27쪽에서 소개	
礪山宋氏十二世系	1644년 (인조 22)	목판본, 1책 44장		*현존 확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7781 *刊記: 歲舍青丘(1644)情和下澣礪城後學宋熙業印布	김선주, 2023; 권기석, 2016	
坡平尹氏舊譜 (野城尹氏世譜)	1644년 (인조 22)	필사본, 1책, 106장		*현존 확인: 『坡平尹氏舊譜』(一名 野城尹氏世譜, 野城君派族譜, 古929.1 Y97j) *尹時衡 서문(1644) 참조	권기석, 2011	
光山金氏世系	1645년 (인조 23)	필사본, 1책		*현존 확인: 고려대학교 도서관(경화당B12-A416)		
杞溪俞氏族譜	1645년 (인조 23)	목판본	경상감영 추정, 목판은 淸道 雲門寺에 보관	*현존 미확인: 「杞溪俞氏族譜序」(『市南先生文集』 권18) 및 『杞溪俞氏族譜』(奎1813, 奎2362) 등에 수록된 俞榮 발문(1645) 참고	권기석, 2011; 최재석, 1979	
永川李氏	1646년 (인조 24)			*현존 미확인: 李民寬, 「族譜序」(『紫巖集』 권3) 참조	권기석, 2011	
豐基秦氏	1646년 (인조 24)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秦尙弘 서문(1646) 참조	권기석, 2011	

사학연구 제156호(2024. 12)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慶州金氏	1648년 (인조 26)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족보 수록 金綱 서문(1648) 참조	권기석, 2011	
烏川鄭氏族譜	1649년 (인조 27)	목판본, 불분권 2책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70-1 *跋: 歲在己丑(1649)...鄭好仁		
新平李氏	1650년 (인조 28)			*현존 미확인: 『신평이씨족보』(규장각 999.11-이772ㄱ-1-2) 및 구보서집 수록 李昞 서문 참조		
漢陽趙氏族譜	1651년 (효종 2)	목판본 추정	寧海府 추정	*현존 미확인: 「漢陽趙氏族譜序」(『潛谷先生遺稿』 권9) 및 현대 족보 수록 趙綱 서문(1651), 金埵 서문(1651), 趙贊 발 문(1651) 참조	권기석, 2011	
洪州宋氏世譜	1652년 (효종 3)	목활자본, 불분권 1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841 *刊記: 崇禎紀元後壬辰(孝宗3, 1652년)十一月二十七日 松沙 活字		
高興柳氏族譜	1653년 (효종 4)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高興柳氏世譜癸巳舊序」) 및 현대 족보에 서문 수록	권기석, 2011	
安東權氏 (甲午譜)	1654년 (효종 5)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 權堦 서문 참조 *跋: 甲午年夏 後孫 慶尙道觀察使 兼巡察使 堦 謹跋	권기석, 2011; 강나은, 2021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東萊鄭氏世譜 (乙未譜)	1655년 (효종 6)	목활자본, 영본 1책(경기대 본) 목판본, 2권 2책(국중도 본)	慶州府 추정	*현존 확인: 경기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古 2518-70-155, 古2518-70-235 *동래정씨 東萊府院君宗宅 所藏(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35쪽) *序: 乙未(1655)仲秋嘉善大夫前史... 李敏求謹序 *手書刻序: 乙未(1655)...李敏求 *手書刻跋: 歲乙未(1655)...鄭良弼 *『東萊鄭氏派譜』(奎1655) 및 현대 족보 수록 李敏求 서문 (1655), 鄭良弼 발문(1655) 참조	권기석, 2011	
義城金氏族譜	1656년 (효종 7)	목판본, 1책	梁山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929.1-의성김보 *序: 庚寅(1650)...金迓[後孫] *跋: 丙申(1656)...金迓[後孫]		
淸州李氏族譜	1657년 (효종 8)	인쇄본 간행 추정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 수록 李天基 서문(1657), 朴世堅 (1657), 李宗儉(1657) 발문 참고	권기석, 2011	『西原古譜』라는 舊 譜가 존재했음
鳳城琴氏 (桃村譜, 奉化琴氏)	1659년 (효종 10)	필사본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琴尙絃 서문 (1659) 참조	권기석, 2011	
順興安氏族譜	1659년 (효종 10)	목판본, 2권 2책	義城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929.1-순흥안디 *序: 崇禎丙子後十三年己亥(1659)...安應昌[後孫]	권기석, 2011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跋 : 是年(1659)...安道徵[後孫] *『順興安氏族譜』(奎12636) 수록 安應昌 서문(1659), 安道徵 서문(1659) 참조		
昌原孔氏族譜	1660년 (현종 1)	목판본, 상하 1책	水原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창원공 *序 : 沈光洙(1622) *刊記 : 庚子(1660) 水原 廣德德睦村 開刊	장인진, 2011	
平康蔡氏辛丑譜	1661년 (현종 2)	목판본, 1책	慶州	*현존 확인: 蔡彭胤 후손(채순석) 소장 *蔡忠元(1598~1665)이 慶州府尹으로서 慶州에서 간행	수원화성박물관, 2023	
沔陽卜氏	1662년 (현종 3)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宋時烈 서문 (1662)	권기석, 2011	
密陽朴氏族譜 (糾正公派)	1662년 (현종 3)	목판본, 3권 1책 97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25-362 *藏書閣 所藏(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29쪽) *識: 歲舍壬寅(1662)		본손 및 외손, 서자 녀까지 수록. 외손 은 본손과 동일한 비중이지만, 서자 녀는 당대 또는 자 녀대에 한정. 등재 순서는 철저한 선 남후녀.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關北淸州韓氏咸 興杻田派譜 (癸卯譜)	1663년 (현종 4)	필사본 추정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수록 韓弘述 서문	권기석, 2011	
道康金氏族譜	1663년 (현종 4)	목판본, 2권 1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844 *序: 歲乙丑臘月下澣後孫通德郎金南衍謹序 *序: 歲乙丑臘月除夕後孫金天挺謹序 不肖孫伯衡暮春追書 *跋: 上之三年癸卯(1663)三月下澣後孫生員宇衡謹跋		
咸平李氏	1663년 (현종 4)	필사본 추정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 수록 李滋 서문(1663) 참조	권기석, 2011	
礪山宋氏世譜	1664년 (현종 5)	목판본, 2권 2책	興陽(高興)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반)929.1-여산송비;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39-67;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716 *序: 辛卯(1651)...呂爾徵 *跋: 歲在靑龍(甲辰, 1664)...宋磐 *跋: 玄익執徐(壬辰, 1652)...宋熙業 *序: 癸巳(1653)...宋時吉 *序: 萬曆紀元之丙午(1606)...宋言愼 *현대 족보 수록 呂爾徵(1651), 宋時吉(1653), 宋熙業(1652) 서문 참조	권기석, 2011	

사학연구 제156호(2024. 12)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咸安趙氏	1664년 (현종 5)	목판본 추정	高靈 추정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趙逢源(1664), 趙德樞 서문 참조	권기석, 2011	
順興安氏族譜	1665년 (현종 6)	목판본, 3권 3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465a		
恩津宋氏族譜	1666년 (현종 7)	목판본, 1책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은진송족 *序: 崇禎丙午(1666)...宋時烈[判事公十三世孫] *宋時烈, 「恩津宋氏族譜序」(『宋子大全』 권137, 1666년) 참조	권기석, 2011, 장인진, 2011	
晉州蘇氏族譜	1670년 (현종 11)	목판본, 2책	羅州牧, 목판은 益山 炭谷 東谷寺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929.1-진주소ㄱ *刊記: 庚寅五月日羅州牧開刊板子移置于益山炭谷東山寺		
陽川許氏族譜	1671년 (현종 12)			*현존 미확인: 許穆, 「陽川許氏族譜」(『記言』 권12, 1671년) 참고	권기석, 2011	
尙州朴氏	1672년 (현종 13)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朴纘世 서문 (1672) 참고	권기석, 2011	*박찬세, 1672(현종 13) 서문: *시조 설화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高興柳氏族譜	1673년 (현종 14)	목판본 추정		*현존 미확인: 宋時烈, 「高興柳氏族譜序」(『宋子大全』 권 137, 1669년) 참조	권기석, 2011	
原州李氏族譜	1674년 (현종 15) 이후	手筆本, 불분권 1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423a *序: 崇禎後三十一年靑虎(甲寅,1674)…外裔原州後人…元綸謹序		
扶安林氏世譜	1674년 (현종 15)	목활자본, 20권 6책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5-54 *跋: 後孫 挺會 *序: 崇禎紀元後甲寅(1674)後孫 煥朝		
新昌孟氏	1675년 (숙종 1)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孟胄瑞 서문 (1675) 참조		
完山崔氏	1675년 (숙종 1)			*현존 미확인: 南九萬, 完山崔氏族譜序(『藥泉集』 권27) 참조		
南平文氏族譜	1676년 (숙종 2)	목판본, 3권 3책	陝川 海印寺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22-36 *序: 崇禎紀元後丙辰(1676)…李蓋 *跋: 陝川文字徵等 *刊記: 丙辰(1676)…海印寺開刊		
澗溪愼氏世譜	1676년 (숙종 2)	필사본, 1책(86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42-6 *寫記: 康熙十八[실은 十五]年丙辰(1676)九月日澗溪後人武出身愼支百傳書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海平尹氏	1676년 (속종 2)	목판본	황해감영 추정	*현존 미확인: 金萬基, 「海平尹氏族譜」(『瑞石先生集』 권5, 1676년),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南九萬 서문(1676), 尹墻 서문(1676) 보충	권기석, 2011	
光山金氏族譜	1677년 (속종 3)	목활자본, 2권 2책		*현존 확인: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929.1-7819광;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735 *序: 丁巳仲秋(1677)...金萬基 *金萬基, 「光山金氏族譜序」(『瑞石先生集』 권5) 참조	권기석, 2011	*김만기 서문: 영남에 거주하는 宗人, 宋熙業씨가 편찬한 족보 있음 夾註 내용을 보충. 同宗과 外裔를 구분.(#외손은 상복을 기준으로 하여 女子의 子에 한함)
錦山金氏族譜	1677년 (속종 3)	목활자본, 1책 62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貴2518-10-973 *序: 崇禎紀元後丁巳(1677)...[金]夏鼎	국립중앙도서관, 2017, 33쪽에 도판 수록	
密城朴氏族譜	1677년 (속종 3)	필사본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朴信圭 서문(1677) 참조	권기석, 2011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晉陽河氏族譜	1677년 (숙종 3)	목활자복사본, 영본 1책		*현존 확인: 안동대학교 도서관, 999.81-하791즈 *舊序:...景泰二年辛未(1451)...河濱, 萬曆三十四年(1606)...河渾 *序: ...崇禎紀元後四丁巳(1677)...柳致明		
鎭川宋氏族譜	1677년 (숙종 3)	목판본, 3권 2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678		
平陽朴氏族譜 (順天)	1677년 (현종 11)	간행본 추정(간행년은 1713)		*현존 미확인: 宋時烈, 「平陽朴氏族譜序」(『宋子大全』 권 138, 1677년) 참조	권기석, 2011	宋時烈 서문의 註釋에는 朴光後가 송시열에게 서문을 청하고, 朴光元이 1713년에 始刊하였다고 함
豐壤趙氏	1678년 (숙종 4)	필사본 추정		*현존 미확인: 『豐壤趙氏世譜』(奎168, 奎167, 奎107, 奎1830, 奎1831) 및 현대 족보 수록 崔錫鼎 서문(1678) 참조	권기석, 2011; 최재석, 1979	
咸陽朴氏族譜 (戊午譜)	1678년 (숙종 4)	목판본, 5권 2책	光山 柳谷村에 藏板	*현존 확인: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929.351-함382; 929.1 - 함양박기 *刊記: 崇禎紀元後戊午(1678)仲夏刊藏于光山柳谷村 *跋: 崇禎紀元後戊午(1678) ...後孫[朴]恬謹識 *宋時烈, 「咸陽朴氏族譜序」(『宋子大全』 권138, 1680년) 및 구보서집과 현대 족보에 실린 朴恬(1678) 서문 참조	권기석, 2011; 함양박, 1678	

사학연구 제156호(2024. 12)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咸平鄭氏	1680년 (숙종 6)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鄭碩輔 서문 참조	권기석, 2011	
英陽南氏族譜	1681년 (숙종 7)			*李惟樟, 「英陽南氏族譜跋」(『孤山先生文集』 권5) 참조	권기석, 2011	
晉州蘇氏族譜	1681년 (숙종 7)	간행본 추정		*현존 미확인: 宋時烈, 「晉州蘇氏族譜序」(『宋子大全』 권 139, 1681년) 참조	권기석, 2011	
平海孫氏	1681년 (숙종 7)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현대 족보 수록 孫聖海 서문(1681) 참조	권기석, 2011	
豐川任氏辛酉譜	1681년 (숙종 7)	목판본 추정	定平府	*현존 미확인: 任相元, 「族譜序」(『恬軒集』 권29) 참조	권기석, 2011	
泰仁許氏	1682년 (숙종 8)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수록 許國亨 서문(1682) 참고	권기석, 2011	
坡平尹氏族譜 (壬戌譜)	1682년 (숙종 8)	목판본, 8권 5책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1-122 *序: 嘉靖紀元之十八年(1539)重陽後五日...蘇世讓 *跋: 崇禎紀元之後五十五年壬戌(1682)...[尹]拯 *跋: 歲舍壬戌(1682)...[尹]尙元 *尹拯, 「重刊坡平姓譜後序」(『明齋先生遺稿』 권32) 참조	권기석, 2011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豐川盧氏族譜 (壬戌譜)	1682년 (숙종 8)	목판본, 불분권 1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681 *현대 족보 수록 盧亨望 서문(1682) 참고	권기석, 2011	
羅州羅氏辛丑譜	1683년 (숙종 9)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족보 수록 羅晩成 서문(1721) 참고	권기석, 2011	
潘南朴氏世譜 (癸亥譜)	1683년 (숙종 9)	목판본, 2권 1책	伊川	*간행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25-189,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준)929.1 - 반남박기 *반남박씨대종회 소장(정호훈, 2018) *朴世堂, 潘南朴氏世譜序(『西溪先生集』 권7), 『潘南朴氏世譜』(奎1929, 2284) 수록 朴泰徵 발문(1679), 朴泰輔 발문(1683) 참조	권기석, 2011; 권기석, 2017	
晉陽鄭氏世譜	1683년 (숙종 9)	필사본, 13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70-221 *康熙22(1683) 癸亥		
韓氏八祖族圖	1683년 (숙종 9)			*현존 미확인: 許穆, 「韓氏八祖族圖序」(『記言』 권12) 참조	권기석, 2011	
慶州李氏族譜	1684년 (숙종 10)	목활자본, 9권 9책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2-556 *表紙: 肅宗朝甲子(1684)譜		
金海金氏族譜	1684년 (숙종 10)	목판본, 1책 84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10-816 *序: 歲在甲子[1684]...金萬一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慶州金氏族譜	1685년 (숙종 11)	목활자본, 1책	서울로 추정	*현존 확인: 慶州金氏宗中 所藏(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30쪽에 소개) *李敏敍, 『慶州金氏族譜序』(『西河先生集』 권12, 1685년) 참조 *『慶州金氏世譜』(奎2991) 수록 金益昌 서문(1685), 金鼎台 서문(1685), 金ᄇᆞᆫ 발문(1685), 金杭(1685) 발문 참조	권기석, 2011; 최재석, 1979	
宣城金氏族譜	1685년 (숙종 11)	목판본, 불분권 2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346 *현대족보 수록 金兌一 서문 참조		
信川金氏	1685년 (숙종 11)	인쇄본 추정	漢師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崔錫鼎(1685), 安成欽 서문(1685) 참조	권기석, 2011	
晉山姜氏族譜 (晉州姜氏, 乙丑譜, 南漢譜)	1685년 (숙종 11)	목판본, 2권 2책	天柱寺(南漢 山城)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00-113;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진주강씨;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837 *刻手者: 金承元 等 *手書刻序: 歲丁未(1667)...姜瑜謹序 *刊記: 南漢天柱寺藏 *序: 歲丁未...姜瑜謹序 *跋: 皇明崇禎紀元後五十有八年己丑(1685)...錫圭拜手謹跋 *跋: 己丑...姜碩考拜手謹跋 *刻手: 金承元, 吳貴奐, 申進明, 金僅先...	권기석, 2011; 장인진, 2011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구보서집 및 현대족보 수록 姜碩老 서문(1685), 姜錫圭 발문(1685), 姜碩耆 발문(1685) 참조		
德水李氏宗系圖 列傳	1686년 (숙종 12)	미간행(필사 본)		*현존 미확인: 李端夏, 「德水李氏宗系圖列傳跋」(『畏齋集』 권5, 1686년) 참조	권기석, 2011	
梁氏大族譜	1686년 (숙종 12)	목판본, 11권 2책	綾陽(?)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46-2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929.1-양씨대거;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694 *한국족보박물관 소장(국립중앙도서관, 2017, 52쪽에 소개) *刊記: 崇禎紀元後丙寅(1686)五月日綾陽梁禹萬編輯 *濟州籍, 南原籍 合譜		
豐川任氏世譜	1686년 (숙종 12)	목판본, 2권 2책	황해감영 추정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3-27 *序: 辛酉(1681)...後孫史曹參議[任]相元	권기석, 2011	
南陽洪氏 (土洪, 丁卯譜)	1687년 (숙종 13)	간행본 출간 추정		*현존 미확인: 현대 족보 수록 洪宇遠 서문(1687) 참고	권기석, 2011	
全州崔氏族譜	1687년 (숙종 13)	목판본, 불분권 1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522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文化柳氏族譜 (己巳譜)	1688년 (숙종 14)	금속활자본 (韓構字), 15권 5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704	박훈평, 2013	
蔚山金氏內外譜	1689년 (숙종 15)	목판본, 1책(추정)		*개인소장: 국립중앙도서관, 2017, 57쪽에서 ‘현전 가장 이른 시기의 내외보’로 소개		초보적 가계기록으로 생각됨
淸州慶氏族譜	1689년 (숙종 15)	목판본, 2권 2책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11-14;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804 *序: 崇禎紀元後己巳(1689)...後孫 耆		
富平李氏	1690년 (숙종 16)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李世焯 서문(1690) 참조	권기석, 2011	
善山金氏族譜	1690년 (숙종 16)	목활자본, 3권 1책, 77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韓古朝58-가5-474 *序: 上之十七年庚午(1690)...金弼相		
興城張氏族譜	1690년 (숙종 16)	목판본, 2권 2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318 *『興城張氏世譜』(규장각, 古929.1-J257h)에 수록된 張宇瞻 서문(1690) 등 참조	*권기석, 2011, 장인진, 2011	
全州李氏族譜	1690년 (현종 16)	목판본, 5권 1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803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咸悅南宮氏族譜	1691년 (숙종 17)	목활자본, 2권 2책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16-1-1-2 *跋: 歲辛未(1691)...南宮侑 *序: 崇禎紀元後再辛未(1691)...南宮珣		
木川馬氏族譜	1692년 (숙종 18)			*현존 미확인: 朴世采, 「跋木川馬氏族譜」(『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권12) 및 현대 족보 수록 張善沖 서문(1692), 李賢 서문(1692), 愼景尹 발문(1692) 참조	권기석, 2011	
宜寧南氏族譜 (癸酉譜)	1693년 (숙종 19)	목판본, 4권 2책	咸興(咸營)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929.1-의령남씨;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294 *序 : 崇禎紀元周甲後丁丑(1697)...南九萬[後孫] *刊記 : 癸酉(1693)歲咸興府開刊 *南九萬, 族譜序(『藥泉集』 권24, 1693년) 참조	權奇奭, 2019; 장인진, 2011	
昌寧曹氏族譜	1693년 (숙종 19)	목판본, 5책	黃海兵營	*현존 미확인: 영남대학교 도서관, 古999.11-창녕조口;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창녕조口 *卷頭: 序: 上之十九年歲在昭陽作噩(癸酉,1693)...崔錫鼎, 萬曆柔兆敦牂(丙午,1606)...[曹] *卷末: 族譜修正都有司, 別有司 *印出記(卷末): 癸酉春三月黃海兵營開刊 *識: 崇禎紀元後戊辰(1688)...[曹]建, 事實, 參攷 *崔錫鼎, 「昌寧曹氏族譜序」(『明谷集』 권7, 1693년) 참조	권기석, 2011, 장인진, 2011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泗川陸氏	1693년 (숙종 23)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족보 수록 陸昌明 서문(1695), 陸林一 서문(1709) 참조	권기석, 2011	
全義李氏	1694년 (숙종 20) 이후	미간행 추정		*현존 미확인: 규장각 소장 『全義李氏族譜』(奎53) 수록 李萬培 서문(1690), 李萬楷 서문(1711), 李庭綽 서문(1754년) 등을 통해 파악		
慶山全氏族譜	1694년 (숙종 20)	목활자본, 4권 5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836 *序: 大明崇禎再壬申(肅宗20, 1694)季冬日宗孫應光謹誌		
慶州金氏族譜	1694년 (숙종 20)	목관본, 1권 1책	南原府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稀B10B-0689 *貞肅公詩集序: 大司諫 成侃 *跋: 丁亥年(1693)正月既望...金溍 *跋: 丁亥年(1693)暮春...金用礪 *慶州金氏族譜序: 歲在癸酉(1693)暢月日...李華鎮 *刊記: 崇禎紀元後六十七年甲戌(1694)暮春既望 開刊于南原北面 *刊行有司: 掌議 幼學 金徵振, 有司 幼學 金玉, 刻手(僧) 雪浩, 僧 印奇, 僧 順日)		
星州李氏族譜	1694년 (숙종 20)	목관본, 3권 3책	星州 安峯影堂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2-57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성주이씨;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307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序: 崇禎紀元後六十年丁卯(1687)仲秋上澣隴西公十四代孫 通政大夫前承政院同副承旨謙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知製 教光迪謹書 *跋: 崇禎紀元後己巳(1689)...[李]光迪 *跋: ...始役於癸酉(1693)七月至甲戌(1694)三月...是年三月 日光迪(1628~1717)謹跋		
延安李氏族譜	1694년 (숙종 20)	목판본, 3권 3책	平安監營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2-667; 계명대학교 동 산도서관, (고)929.1 - 연안이기;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750 *書寫者: 李萬成; 李萬根 *序: 萬曆紀元之三十有三年乙巳(1605)...李光庭 *跋: 崇禎紀元後五十一年甲戌(1694)...李萬元 *刊記: 甲戌四月日 平安監營開刊		
仁川李氏族譜	1694년 (숙종 20)	목판본, 불분권 1책	冠山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稀B10B-0692 *仁川李氏族譜序: 崇禎紀元後歲在甲戌(1694)五月下澣 後孫 [李]敏琦(1646~1704)謹序, [李]甲命謹跋 *刊記: 崇禎後甲戌(1694)五月下澣 後孫 [李]仁弼(1728-?)謹 書 開刊于冠山	최재석, 1979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咸陽朴氏族譜	1694년 (숙종 20)	목판본, 불분권 1책	光山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644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朴慶後 서문(1694) 참조	권기석, 2011	
海州鄭氏	1694년 (숙종 20)	목판본 추정	서울 靑坡洞 추정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 족보 수록 鄭重徽 서문 (1694), 鄭啓周 발문(1694)	권기석, 2011	
密陽孫氏	1695년 (숙종 21)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수록 孫侗 서문(1695) 참조	권기석, 2011	
濟州梁氏大族 譜	1695년 (숙종 21)	목판본, 3권 2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646		
潭陽田氏族譜	1700년 (숙종 26)	목판본, 1책 115장	宜寧 寶泉寺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G2518-67-17 *序: ...[田]霽, 歲甲申(?)...[田]九畹 *刊記: 庚辰(1700)二月日宜寧寶泉寺刊		
草溪鄭氏族譜	1700년 (숙종 26)	목판본, 4권 4책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초계정	장인진, 2011	
判尹南公先系 (宜寧南氏)	1700년 (숙종 26)	목판본, 1책, 41장		*현존 확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4867	권기석, 2019	南致勤 개인의 가계를 간단히 정리한 가첩 수준의 초보적 가계기록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密陽朴氏族譜	1701년 (숙종 27)	목판본, 2권 1책	永嘉[安東], 洪濟菴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25-433; 미국 하버드대 학연칭도서관 TK 2290.5 4338.2 *序: 上之三年丁巳(1677)...朴信圭 *跋: 已後十五年辛巳(1701) ...朴紳 *跋: 辛巳(1701) ...朴重圭 *刊記: 永嘉府刊 洪濟菴藏 *墨書(表紙): 肅宗辛巳安東刊		
順興安氏族譜	1701년 (숙종 27)	목활자본, 2권 2책		*현존 확인: 미국 하버드대학연칭도서관TK 2290.5 3427.5 *序: 萬曆甲寅(1614)···李竣; 跋: 嘉靖丙午(1546)···[安]玟 *跋(卷末): 崇禎再辛巳(1701)···不肖後裔[安]處明 *跋: 崇禎記元後再辛巳(1701)···外裔···李廷喆 *跋: 歲己亥(1659)...是年(1659)···[安]道徵 *序: 皇命嘉靖二十五年(1546)···[安]瑋		
安東權氏世譜 (辛巳譜)	1701년 (숙종 27)	목판본, 13권 13책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07-66 *序: 崇禎後六十六年辛巳(1701)...權愈; 辛巳(1701)...朴紳	권기석, 2019; 강나은, 2021; 이수건, 2003	
光山金氏族譜	1702년 (숙종 28)	필사본, 1책 82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10-951 *跋: 康熙四十一年壬午(1702)...金文衍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大丘徐氏族譜 (壬午譜)	1702년 (숙종 28)	목판본, 3권 3책	진라감영 추정	*현존 확인: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K2-1734 *관련 연구: 최계석, 1979 *徐文重 발문(1702), 徐宗玉(1736) 丙辰譜 발문 참조		
靈城丁氏族譜	1702년 (숙종 28)	목판본, 3권 3책	全羅道 茂長縣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9-34;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523 *序: 崇禎後再辛巳(1701)...丁最大 *跋: 崇禎紀元後歲再辛巳(1701)...丁致亨 *刊記: 崇禎後 再壬午(1702) 茂長 古縣印		
淳昌趙氏族譜	1702년 (숙종 28)	목판본, 2권 1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정리중); 계명대학교 동 산도서관, (고)929.1 - 순창조씨 *序: 崇禎紀元後玄默敦群(壬午, 1642)仲夏上澣 後孫維元敬 書于仙川精舍 *卷末: 歲在壬午仲夏上澣	장인진, 2011	
昌原丁氏族譜	1702년 (숙종 28)	목판본, 58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9-33 *跋: 辛巳(1701)...擧元, 崇禎再壬午(1702)...始炯 *版心題: 昌原丁氏族譜, 錦城丁氏族譜		
平山申氏世譜	1702년 (숙종 28)	고려대분:목 판본,		*현존 확인: 고려대학교 도서관, 대학원B13-A16; 계명대학 교 동산도서관, 929.1-평산신씨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2책(영본) 존경각본:목 활자본, 4권 4책		B10B-0822 *序: 壬午(1702)…平川君琬謹序. *序: 崇禎九年(1636)…東陽尉翊聖謹序(구보) *跋: 崇禎九年(1636)…敏一謹跋(구보)		
海南尹氏族譜	1702년 (숙종 28)	목판본, 4권 3책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1-3 *尹南美 編 *序: 崇禎紀元後七十五年壬午(1702)…沈檀		
草溪鄭氏族譜	1703년 (숙종 29)	목판본, 4권 4책		*현존 확인: 화성시 역사박물관 (초계정씨 기증자료) *편찬자나 서문은 없음 *간기: 癸未		
杞溪俞氏族譜	1704년 (숙종 30)	목판본, 8권 3책	連山縣	*현존 확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813; 계명 대학교 동산도서관, (고준)929.1 - 기계유씨 *刊記: 甲申(1704)春連山縣開刊 *序: 崇禎紀元之七十年甲申(1704)…俞命賚 *卷末: 乙酉(1645)…俞柴舊跋. 關逢涪灘(1704)…俞命咸跋. 歲在甲申(1704)…俞命聘跋		
延安車氏世譜	1704년 (숙종 30)	목활자본, 2권 2책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79-14 *印出記: 歲甲申(1704)四月上浣開刊于水原雙湖柳谷德行宅 *序: 崇禎後甲申(1704)…黃景源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跋: 權尙鼎		
再校添修淸州韓氏族譜	1704년 (숙종 30)	목판본, 6권 3책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G2518-89-61 *序: 崇禎重甲申(1704)...韓德亮 *表題: 淸州韓氏族譜 *版心題: 淸州韓氏族譜		
蔚山朴氏族譜	1705년 (숙종 31)	목판본, 1책		*현존 미확인: 관련 연구 참조	최재석, 1979; 이수건, 2003	
南原尹氏	1706년 (숙종 32)	목판본 추정	安東	*현존 미확인: 『南原尹氏族譜』(奎8604) 수록 尹德駿 서문(1706), 尹以烈 서문(1706) 참조		
延安車氏譜	1706년 (숙종 32)	필사본, 1책(79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G2518-79-18 *序: 歲在丙戌(1706)...柳尙運		
坡州廉氏族譜	1706년 (숙종 32)	목판본, 1책	鎭岑 : 松谷書室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반)929.1 - 과주염○ *跋 : 崇禎紀元後六十三年丙戌(1706)廉就敬[後孫] *刊記 : 是年孟冬開刊於鎭岑松谷書室 *序 : 甲申(1704)...廉命吾[不肖]		
海州崔氏族譜	1706년 (숙종 32)			*현존 미확인: 崔愼, 『鶴庵集』 권1, 「海州崔氏族譜序」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高陽朴氏族譜	1707년 (숙종 33)	목판본, 1책	[高靈]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준)929.1 - 고양박 *序: 上之三十四年丁亥(1707)...朴萬重[後孫] *刊記: 崇禎紀元後丁亥(1707)清和既望開刊	장인진, 2011	
一善金氏世譜	1709년 (숙종 35)	목판본, 불분권 1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675		
昌寧成氏族譜	1709년 (숙종 35)	목판본, 4권 4책	興海郡, 목판은 泉谷寺 譜室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36-13; 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구원, 奎979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창녕성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221 *刊記: 崇禎後八十二年己丑(1709)冬十月開刊于慶尙道興海郡 *庚寅春(1710)春藏置于本部西面泉谷寺傍新創譜室 *卷末: 萬曆四十三年(1615)…文潄敬書(구보) *萬曆丙辰(1616)…成晉善識 *跋: 後裔通訓大夫行昌平縣令成重性子正敬跋 *昌寧成氏合譜序…崇禎紀元後八十二年己丑(1709)…洪萬 朝識 *崇禎紀元後八十二年己丑(1709)…後孫瓌序, 凡例… *舊序: 弘治癸丑(1493)新正二日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兼 同知春秋館事成倪磐叔謹叙 *萬曆二十四年(1596)…成壽益識	장인진, 2011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豊山洪氏	1709년 (속종 35)	목판본 추정	경상감영 추정	*현존 미확인: 『豊山洪氏族譜』(奎21) 수록 洪萬宗 서문 (1709), 洪萬朝 발문(1709) 참조		
碧珍李氏世譜	1710년 (속종 36)	목판본, 4권 5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592		
朔寧崔氏族譜	1710년 (속종 36)	목활자본, 2권 2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786 *庚寅(1710)三月...濟州牧使崔啓翁(1654~?)謹書.		
同福吳氏族譜	1712년 (속종 38)	필사본 3책, 목판본 2권 2책	公州 月窟菴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52-89 (필사원고본); 古2518-52-83-1-2 (목판본); 전남대학교 도서관 2H4-동450 -v.1-v.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동북오씨 *序: 上之三十八年壬辰(1712)...[吳]尙游 *刊記: 上之三十八(1712)年公州月窟庵開刊	장인진, 2011; 최재석, 1979	
英陽南氏族譜	1712년 (속종 38)	목판본, 3권 1책	安東, 南興齋舍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13-20;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300 *序: 天啓壬戌(1622)...[南]隆達 *序: 崇禎紀元五十三年庚申(1680)...[南]磁 *序: 壬辰(1712)...安鍊石 *跋: 上之七年歲在辛酉(肅宗 7, 1681)...李惟樟 *刊記: 壬辰(1712)歲安東南興齋舍開刊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德水李氏世譜 (壬辰譜)	1713년 (숙종 39)	목판본, 4권 2책	경상감영 추정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2-576;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준)929.1 - 덕수이 *序: 崇禎紀元後八十五年壬辰(1712)...李奮 *跋: 歲癸巳(1713)...李坦	장인진, 2011	
驪興閔氏族譜	1713년 (숙종 39)	목판본, 7권 8책	京都(漢城) 校書館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여흥민자 *序 : 癸巳(1713)...閔鎮厚 *刊記 : 癸巳(1713)重刊 板在京都校書館	장인진, 2011	
順天朴氏癸巳譜	1713년 (숙종 39)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수록 朴光一 발문(1713) 참조		
靑松沈氏族譜 (增補重刊)	1713년 (숙종 39)	목판본, 4권 5책	順興, 浮石寺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43-14;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청송삼기 *刊記: 順興府開刊浮石寺藏板 *序: 崇禎紀元後八十五年壬辰(1712)...[沈]檀 *序 : 己丑(1709)...沈長世[後孫] *跋: 歲癸巳(1713)...[沈]得良	장인진, 2011	
威從魚氏族譜	1713년 (숙종 39)	목판본, 1책, 115장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序: 崇禎後八十六年歲在癸巳(1713)...[魚]有鳳; 跋: [魚]有龜 *卷末에 刻譜後記와 함께 刻手者 있음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昌原黃氏族譜	1714년 (숙종 40) 이후	필사본, 2책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94-47 *黃澄, 黃舜卿, 黃處中 등에 대한 기록이 있음 *內容中: 崇禎紀元後再甲午(1714)...		
江陵金氏世譜	1714년 (숙종 40)	목판본, 4권 4책	江陵, 普賢寺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10-878-1-4 *序: 嘉靖四十四年(1565)...金添慶 *跋: 崇禎後八十七年甲午(1714)...金滄 *刊記: 刊板藏于江陵普賢寺印紙所入十一卷		
載寧李氏族譜	1714년 (숙종 40)	목판본, 2권 2책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재령이 *序 : 崇禎甲申後闕逢敦尙(1714)...李裁[贈判書公之孫]	장인진, 2011	
幸州奇氏族譜	1714년 (숙종 40)	목활자본, 4권 4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757 *記: 肅宗四十(1714)年 *序: 甲午(肅宗 40, 1714)四月日不肖孫錫壘再拜敬識		
光山金氏世譜	1715년 (숙종 41)	목활자본, 1책 72장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광산김노 *跋 : 崇禎紀元後乙未(1655)...金益重 *刊記 : 崇禎紀元後歲在乙未(1715) 松沙活字 印出	장인진, 2011	
載寧李氏世譜	1715년 (숙종 41)	목활자본, 2권 2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621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海平尹氏 (乙未譜)	1715년 (숙종 41)	활자본	北漢 重興寺	*현존 미확인: 『坡平尹氏世譜』(奎1848) 수록 尹聖瑀 발문 (1715) 참조		
東萊鄭氏族譜 (丙申譜)	1716년 (숙종 42)	목판본, 27권 6책	慶州, 慶州府	*현존 확인: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UC Berkeley Library);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동래정저 *刊記: 丙申(1716)五月慶州府開刊 *序: 萬曆十三年(1585)...鄭惟吉謹書 *舊序: 乙未(1655)...李敏求謹序 *後跋: 崇禎後再丙申(1716)...鄭必東謹書 *舊跋: 乙未(1655)...鄭良弼謹跋 *後跋: 丙申(1716)...鄭東後謹跋	장인진, 2011	
綾城具氏族譜(丙申譜)	1716년 (숙종 42)	목판본 추정		*현존 확인: 宋時烈, 「綾城具氏族譜序」(『宋子大全』 권116, 1666) 참조	권기석, 2011, 차장섭, 2006	송시열의 서문은 1666년에 작성되었으나, 제정의 결핍으로 실제로는 50년 후인 1716년에 간행
白川趙氏	1716년 (숙종 42)	간행되었을 가능성 높음	漢師 추정	*현존 미확인: 『白川趙氏族譜』(奎2929) 수록 趙錫周 서문 (1716), 趙完璧 서문(1716) 참조		
靈山寧越辛氏 合譜	1716년 (숙종 42)	목활자본, 4권 4책	竹山 七賢寺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41-14,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영산영○ - 1	장인진, 2011; 차장섭, 2006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序: 崇禎紀元後八十九年丙申(1716)...李? *跋: 後孫 澤隱 *跋: 崇禎紀元後再丙申(1716)...後孫 [辛]夢龍, [辛]龍 *刊記: 崇禎紀元後再丙申(1716)二月十八日畢 *刊記: 京畿道竹山七賢寺辛氏族譜印出所		
原州崔氏	1716년 (숙종 42)			*현존 미확인: 구보서집 및 현대족보(『原州崔氏世譜』, 1987) 수록 崔齊岳 서문(1716) 참조		
南陽洪氏族譜 (丙申譜, 唐洪)	1718년 (숙종 44)	목판본, 7권 4책	嶺營(大丘), 山陰(後刷: 계명대본)	*현존 확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929.1 - 남양홍씨 *序: 崇禎紀元之八十九年丙申(1716)...閔鎮厚 *跋: 戊戌(1718)...洪九采		
首陽吳氏族譜	1718년 (숙종 44)	목판본, 12권 4책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791		
沃川全氏族譜	1718년 (숙종 44)	목판본, 2권 2책	沃川全氏譜所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68-30 *跋: 上之四十四年戊戌(1718)...後孫[全]壽山 *跋: 崇禎乙亥(1635)...全命龍 *序: 嘉靖甲寅(1554)...全彭齡		
延安金氏世譜	1719년 (숙종 45)	목판본, 4권 4책	平壤府	*현존 확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0B-0838 *序: 崇禎後九十二年己亥(1719)仲冬平壤庶尹金相助謹書	최재석, 1979	

朝鮮 初·中期 族譜의 현존 상황과 간행 추이

書名	刊行年	인쇄 방식	간행 장소	소장사항	관련 연구	비고
				*刊: 乙亥(1719)十一月平壤府刊 *書: 崇禎後九十二年己亥(1719)仲冬生員金聲大謹識 金錫采謹書		
晉陽河氏族譜 (己亥譜)	1719년 (숙종 45)	목판본, 3책 124장	晉州 靑谷寺	*현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88-25 *刊記: 晉州靑谷寺開刊 *跋: 上之四十五年己亥(1719)...형 *晉陽河氏 澹山宗中所藏.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31쪽에서 소개 *序: 天啓元年(1621)...河橙		

